

한우미당

vol.204

Hanwoo Journal
2023.11



11월호 표지 이미지

- 28 권두언
한우농가 권익보호 입법·의정활동에 최선
윤재갑 국회의원

이슈

- 30 렘피스킨,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기획특집

- 38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한우문화공모전 수상작

현장·탐방

- 48 한우법 제정 통과 촉구...기자간담회
52 대한한우 농가탐방
강원도지회 홍천군지부 박시덕 회원



초점·동향

- 58 유럽연합 쇠고기 수입 성명 발표
김삼주 회장 국회 참고인 출석
68 정부의 자조금 개편 시도 및 추진경과
74 10월 한우동향분석

사양·컨설팅

- 82 우수한 송아지 생산을 위해
BA플러스
86 렘피스킨 QnA
렘피스킨 바로알기 카드뉴스
93 기회비용을 고려한 한우정책 당점 전략
김대중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 박사
98 겨울철 한우 장독혈증 발생과 대책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장

문화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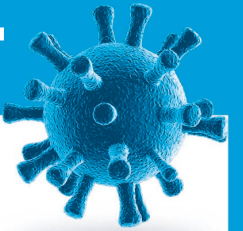
- 102 트렌드 코리아 2024
106 감기와 독감, 코로나 올해는 피할 수 있을까?
110 협회사료 안내
112 구독안내



전국한우협회



렘피스킨 LUMPY SKIN DISEASE 예방 및 증상신고



렘피스킨이란

소 전신성 피부병 증상으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파라.모가.진드기 등 흡혈곤충 및 오염된 환경에서 직간접 전파

예방수칙

- ✓ 곤충 활동기 전두수 꼼꼼한 관찰
- ✓ 주기적 분변처리
- ✓ 주사기 재사용 절대 금지
- ✓ 농장 주변 물 웅덩이 제거
- ✓ 포충기 사용 등 곤충 방제 작업
- ✓ 의심증상 발견시 방역기관 신고

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

전신에 5cm크기의 울퉁불퉁 혹덩어리 및 딱지 궤양화 발견시 신고



주요증상

- ✓ 41도 이상 발열·의기소침
- ✓ 식욕부진·삐쩍마름·딱지형성
- ✓ 눈물·코물 증가, 유산·불임
- ✓ 우유생산량 급감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9060/1588-4060**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 둔갑 판매-군 급식 문제 국감 질의 유럽산 쇠고기 한국시장 진출 강력 저지 한우농가 권익보호 입법·의정활동에 최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국회의원 윤재갑입니다.

우선 렘피스킨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음에도 우리 한우산업을 위해 애써주시는 한우 농가와 한우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한우농가의 권리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김삼주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우는 든든한 일꾼이자 집안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이제 한우는 일소의 역할은 끝나고 완전한 육용우로 대체되었지만, 사라지는 농촌을 살아나는 농촌으로 만드는 중심에 한우가 자리하고 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우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 유일의 토종자원으로 국내 10만 8,000여 축산농가 중 80%에 달하는 9만 농가가 한우농가일 정도로 한우는 대한민국 대표 축종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우산업은 큰 변화와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 옆친데 뺏친격으로 최근 배합사료 가격 폭등, 조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올라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국정감사에서 젓소 갈비탕의 한우 갈비탕 둔갑 문제, 저가 수입 농축산물로 대체될 위험에 처한 군 급식 문제 등 한우농가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질의하는 등 한우농가의 권익 보호와 우리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심의를 실시한 가운데 저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유럽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진출 저지를 위해 부정적인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출 90% 이상이 EU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었지만, 독일을 비롯한 EU 전체가 수입 재개를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우농가의 피해 대책 마련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입 재개 절차는 우리 한우농가에 어려움만 커지게 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월간 한우마당 11월호’ 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한우를 둘러싼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한번 한우산업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국회의원 윤재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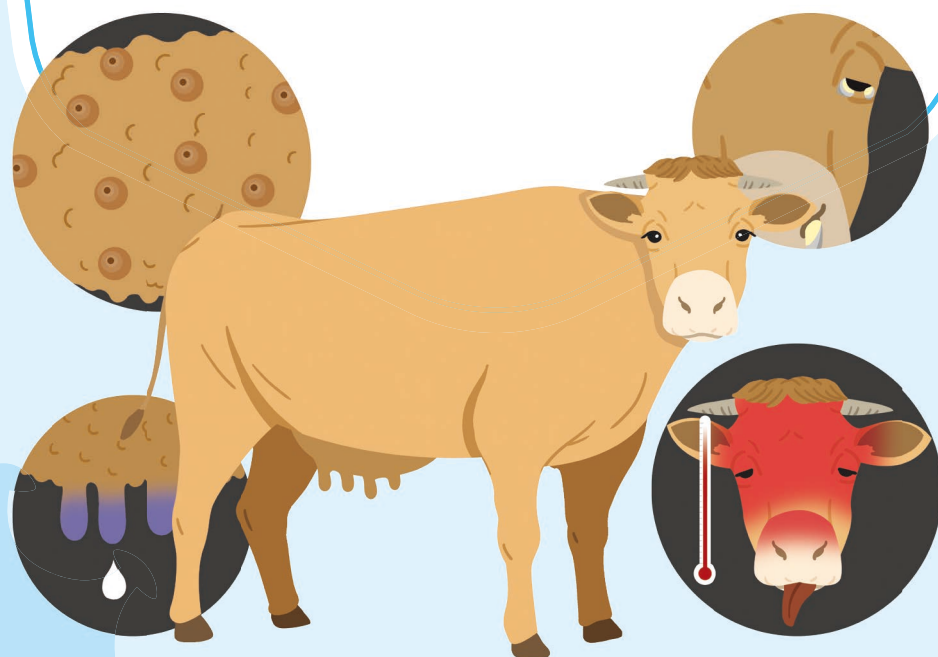
‘럼피스킨’ 대한민국에서 첫 발생 긴급 백신접종-차단방역 만전

고열, 피부·점막의 결절·궤양성 병변이 발생하는 럼피스킨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난 10월 20일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한우농장에서 확진됐다.

첫 확진 이후 경북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협회는 농가단위 차단 방역 및 럼피스킨 증상 안내자료를 홍보하고 정부와 방역 및 보상대책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럼피스킨병 내지 럼피스킨바이러스 등의 표현을 자제하고 ‘럼피스킨’으로만 표기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럼피스킨’이 공식표기로 정해졌다.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럼피스킨이 주는 여러 영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2019년부터 국내 발생 위험 감지...조속한 백신접종만이 해법

럼피스킨은 흡혈 파리류, 모기류, 진드기류 등에 의해 전파되고 감염동물의 피부, 침, 분비물(눈, 코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주사기 재사용 또는 오염된 매개물(급수통 등)에 의해서도 전파된다.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국가는 리비아,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국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부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럼피스킨의 국내 발생을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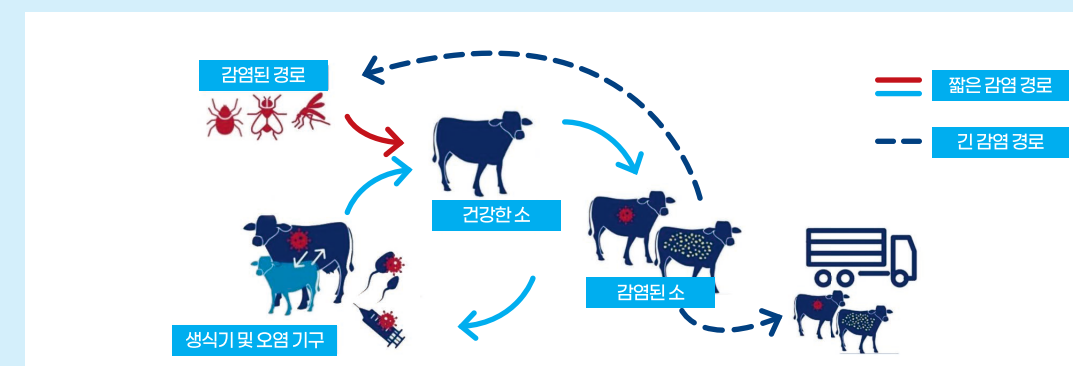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장은 “아시아 국가들은 연중 곤충이 활동하는 아열대성 기후로 럼피스킨의 발생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다 2019년부터 아시아 전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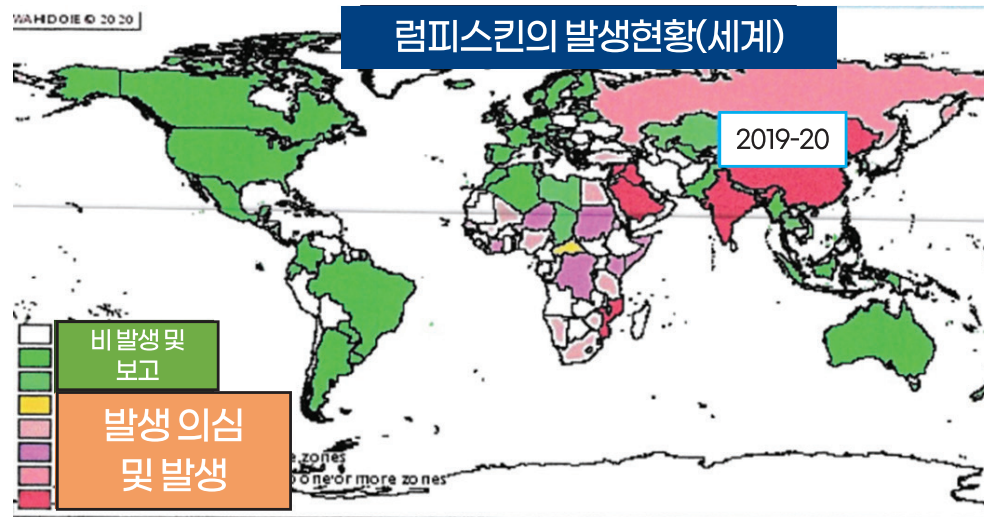
이들 럼피스킨 발생 국가는 대부분 백신 정책으로 확산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럽은 2015년 그리스 등 남동부에서 발생된 후 곧바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매년 백신접종을 의무화했다. 때문인지 2018년 이후에는 발생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만은 2020년 최초 발생후 백신접종을 추진해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

수의업계의 한 전문가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와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에서도 럼피스킨의 확산 방지를 위해 조기 검출과 함께 신속한 백신접종을 강조하고 있다”며 “빠른 백신 접종만이 럼피스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럼피스킨 바이러스 감염 경로





럼피스킨 전파양상, 돼지열병과 유사

잠비아에서 1929년 최초로 발생한 럼피스킨은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타났으며 1989년 이스라엘로 전파됐다. 2015년 그리스 등 남동유럽과 러시아로 전파된 후 2019년부터 아시아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다.

럼피스킨의 전 세계 전파 양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9년에 창궐했던 아프리카 아프리카돼지열병 또한 1929년 잠비아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오랜시간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으로 토착화 되었다가 1990년 이후부터 중동과 유럽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 2013년에는 튀르키예와 동유럽, 러시아까지 발병했다. 럼피스킨과 같이 2019년에는 방글라데시, 중국 등 아시아에까지 전파되다 국내 상륙했다. 주된 감염경로는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흡혈곤충이다. 곤충은 매개체로 운반역할을 하며, 태배상자 및 사료 원재료 운반 등 여러 경로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곤충에 물리지 않아도 럼피스킨에 감염된 개체와 접촉 또는 바이러스로 오염된 사료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럼피스킨으로 인한 가축 피해

럼피스킨 발생의 가장 큰 피해는 일단 감염 동물 일부가 폐사하는 것과 피부·점막 결절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축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럼피스킨에 감염되면 몸 전체를 뒤덮는 혹덩어리가 형성돼 외견에 흉터가 남기 때문에 사실상 출하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가축손상 외에도 유량감소, 유산, 불임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며 피해를 입힌다. 럼피스킨으로 인한 소 폐사율은 10%미만으로 높진 않지만, 회복 후에도 소의 체중이 줄고 외상 흉터로 도체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불임과 유산이 늘어나는 후유증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럼피스킨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처럼 치사율 높진 않지만 전파력이 강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시이동중지 및 농가간 접촉금지 등으로 도축·출하, 송아지 거래 등 경제적 피해도 상당하다. 협회는 정부와 도축 및 출하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축시장 개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다행인 점은 럼피스킨이 막강한 전파력을 보이지만, 구제역처럼 공기 중 전파가 되지 않아 방제로 차단병역 및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농가단위 철저한 방역이 중요한 이유다.

한우 가격 및 수급 영향 미미 소비불안 불식에 주력

지난 5월 구제역 발생 이후 5개월 만에 유례없는 럼피스킨의 발생으로 한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음성축산물공판장의 경우 질병 발생 이후 경기, 충청지역에서 도축 예정인 한우의 이동이 제한돼 일정 기간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음성축산물공판장 관계자는 “지난 10월 20일 도축예정이었던 소가 이동 제한으로 발이 묶여 3일후인 23일 도축되고 그 이후로도 일시적으로 반입량과 작업량이 감소해 지난 10월 24일 한우 거세우 도매가격이 kg당 2만1,000원까지 상승했다”며 “경기, 충청지역뿐만 아니라 강원, 전북, 전남 지역에서도 럼피스킨이 발병하고 있어 도축 물량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생적인 시설 축산물 도축·유통’ 홍보 축산인들 책임감·가축질병 차단방역 강화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살처분된 한우가 많지 않고 농장에서 백신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럼피스킨은 종식 시점을 명확하게 발표할 수 없는 것도 소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병규 농협경제제주 축산경제 한우국 연구위원은 “11월 15일부터 대대적인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더불어 한우 소비 촉진 캠페인이 연말까지 이어져 업계에서 특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럼피스킨이 찬물을 끼얹었다”며 “일반적인 가축질병의 경우 발생 시점이 일정 기간 지나면 정부가 종식을 선언하는데 럼피스킨의 경우 농장 내 매개체를 전부 제거해도 언제 주변에서 다시 유입될지 모르기 때문에 빠른 종식선언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이 우리 축산물이 안전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활동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두수 백신접종, 총력 진압

정부는 접종대상인 전국 한우, 육우, 젖소 등 사육 소 407만 6천여 마리를 11월 10일까지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특별점검에 돌입한다.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방제와 소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백신 항체가 생기는 3주가 지나는 11월 말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방역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닫혀진 가축시장 또한 11월 말 경 재개장될 것이 유력하다.



한국MSD가 소개하는 ‘럼피백스’ QnA



MSD사의 ‘럼피백스’가 현재 긴급접종되고 있다. 다음은 한국MSD측에서 제공한 백신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다. 설명을 간단히 살펴본다.

Q. 럼피백스는 어떤 백신인가?

럼피백스는 약독화 생독백신(Modified Live)이며, 현재까지 효과적으로 럼피스킨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증명된 백신이다.

Q. 럼피백스는 휴약기간이 어떻게 되나?

휴약기간은 0일이다. 현재 유통되는 제품의 영문포장지에 표기된 휴약기간(Withdrawal period) 21일은 허가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일반적인 백신 휴약기간이며, 본 럼피백스의 휴약기간은 구제역 백신과 동일하게 0일이다.(우유 0일, 고기 0일)

Q. 럼피백스는 어떻게 희석하고 사용법은?

럼피백스의 박스를 열면 동결건조 백신이 들어있는 작은 유리병(파란색라벨)과 20ml의 희석액이 들어있는 큰 흰색 병(흰색라벨)이 있으며, 우선 희석액을 5ml 정도 뽑고 동결건조 병에 넣은 후(동결건조 백신병은 약 7ml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음) 잘 흔들어 백신 액을 만든다. 이어 이 용액을 다시 뽑아 남아있는 희석액 병에 잘 섞어서 20마리분(20ml) 백신용액을 제조한다.

Q. 럼피백스는 어떻게 주사하나?

럼피백스는 피하접종으로 마리당 1ml를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소의 피하주사는 목 또는 어깨 후방의 피부가죽을 들고 잡아당긴 피부와 근육의 사이 공간에 주사한다.

Q. 럼피백스를 근육주사하면 어떻게 되나?

해당 백신은 피하로 주사했을 때 가장 유효한 면역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럼피백스를 근육으로 주사했을 때에 대한 유효성의 자료는 확보가 돼 있지 않다.

Q. 럼피백스의 부작용은?

아주 드문 케이스에서 유량이 일시적으로 줄어 들 수 있고 럼피스킨이 상재하지 않은 지역에선 백신접종 이후 일시적으로 작은 혹이 관찰되며, 때때로 열감이 동반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이러한 혹은 치료 없이 대부분 그대로 두면 없어지며, 주사부위의 부종이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



럼피스킨 관련 주요 안내사항

1. 현재 상황

- 국내 첫 발생(10.19, 서산) 이후 8개 시도 27개 시군에서 총 83호 발생
-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및 '럼피스킨 긴급행동지침'상의 LSD 발생상황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사항 이행 필요

2. 도축 출하 관련

- 방역대·역학, 행정명령 등으로 이동제한 중인 소 사육 농가 중 백신접종 완료 농가 대상
 - 시험소·시군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가 출하예정 소 전 두수에 대해 정밀 임상검사(축진·체온측정 포함) 후 이상이 없는 농장은 검사종료 후 48시간 내 출하
 - *예찰을 한 수의사는 예찰 결과를 시·군에 통보 후 시·군이 붙임 출하 승인서 발급

3. 생축 소반출 금지

- 럼피스킨 발생지역 및 그 인접 시·군 소 농장으로 생축(소)의 반입·반출 금지
- 비발생 시도(대구·경북·제주)와 소 생축 및 생분뇨 이동 금지
 -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한 반출은 예외
 - 시·도간 생분뇨 이동도 금지하되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한 퇴·액비 및 완제품은 이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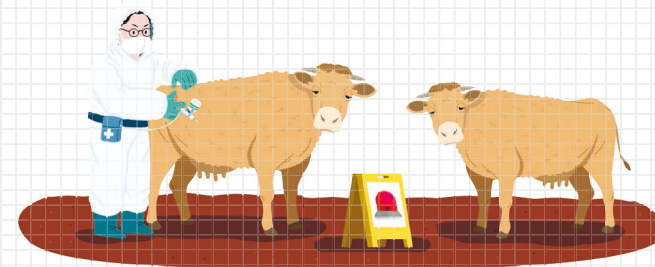


4. 협회 건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관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과의 면담(10.31)
- 대통령실 경제수석(농업비서관)과의 현장점검(11.2)
 - (1) 백신 접종 완료 후 양성 개체만 살처분
 - (2) 피하접종 무침주사기 및 피하 접종용 주사기 보급
 - (3) 살처분 보상비 100% 지원
 - (4)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농가·수의사 등 부상 보험 대책 마련
 - (5) 질병 종식을 위한 전 두수 전문가(공수의) 접종 시행

5. 현재 발령중인 행정명령

연번	행정명령 내용	비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지역 내 소 농장은 생축(소) 반입* 및 반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지역 외(내)부에서 대상 지역 내 소 농장으로 생축(소) 반입금지 - 대상지역 : 럼피스킨이 발생한 모든 시·군 및 인접 시·군 ※ '23.10.24일 이후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은 발생 시마다 대상지역 알림 조치 중 - 명령기간 : '23.10.25 ~ 대상 지역 사육 소 백신접종 완료 후 3주 경과시 	도축장 출하 예외 (단, 발생 시군은 출하 승인서 발급) (10.3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유(원유)차량은 젖소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 럼피스킨 발생으로 설정된 방역지역(방역대) - 명령기간 : '23.10.26일 ~ 대상 지역 이동제한(방역대) 전부 해제 시 까지 	농장 간이 동은 별도 조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차량은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 럼피스킨 발생으로 설정된 방역지역(방역대) - 명령기간 : '23.10.26일 ~ 대상 지역 이동제한(방역대) 전부 해제 시 까지 	농장 간이 동은 별도 조치
4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발생 시·도의 소 농장은 그 외 시·도와 생축(소) 반출·입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 비발생 시·도(대구, 경북, 제주) *명령기간 중 대상 지역에서 추가 발생시(확진일) 발생 시·도로 변경 적용 - 명령기간 : '23.10.30일 ~ 전국 소 백신접종 완료 후 3주 경과시까지 	도축장 출하 예외
5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발생 시·도의 소 농장은 그 외 시·도와 생분뇨(소) 반출·입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 비발생 시·도(대구, 경북, 제주) *명령기간 중 대상 지역에서 추가 발생시(확진일) 발생 시·도로 변경 적용 - 명령기간 : '23.10.30일 ~ 전국 소 백신접종 완료 후 3주 경과시까지 	동일생활권 내부 이동 및 퇴비 완제품은 예외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한우고기 최대 50% 할인!

11월 1일은 일년 중 한우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날이다. 우리 협회는 온 국민이 단 하루만이라도 부담없이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한우농가 거출금인 한우자조금을 투입하여 매년 대규모 할인행사와 문화공연, 숯불구이축제를 진행했다.

01 한우버거 및 한우 토르망치 바비큐 등
한우요리 시식회

02 한우 푸드트럭 운영
(한우 스테이크 조리 서비스)

03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행사

한우의날



우리 협회는 한우의날을 기념해 한우고기를 최대 50% 할인판매하고 숯불구이축제 등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했다.

중앙회는 11월 1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한우버거를 비롯해 한우 토르망치 바비큐 등 한우요리 시식회와 한우스테이크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2023 한우문화공모전 시상식과 공연 이벤트도 진행했다.

김삼주 회장은 "11월 1일은 온 국민이 한우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한우농가의 진심을 전하는 날이다"며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이 세계가 한우먹는날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우를 즐기고 더욱 사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의날 행사 모습 및 공모전 수상작은 협회 누리집(www.ihanwoo.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스케치



온 국민이 한우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한우농가의 진심을 전하는 날
차민욱 셰프, 협회 홍보대사 위촉



한우버거, 한우 토르망치 바비큐 등
한우요리 시식회
한우스테이크 푸드트럭 운영

2023 한우문화공모전 시상식
각종 공연 및 이벤트 진행



11월 1일 한우의날 유래 최고·제일· 으뜸...최고를 뜻하는 10이 세 번 겹친날

11월 1일 한우의날은 한우를 꾸준히 사랑해 주는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기 위한 한우농가들의 진심이 담긴 날이자 한우농가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이다.

2000년대 초반 수입개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협회는 ‘한우가 오직 한우로만 판매되는 유통구조 확립’을 요구하며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국민적 관심과 호응으로 마침내 2008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로 강화되었고, 한우농가들은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고 보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우의날 제정을 논의했다.

‘한우의날’ 제정은 한우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해 온 국민이 한우를 즐기는 ‘대한민국 이 한우먹는날’을 또하나의 명절로 승화시키자는 한우농가의 염원이 깃든 날이다.

한우의날 선포문

한우는 반만년 역사를 함께해온 배달민족의 동반자이다.

오늘날에 이르러 국민의 최고 안전한 먹을거리로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는 한우는 한국농업의 기동이며 세계 유일의 유전자원이자 반만년 우리 민족의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문화유산이다.

앞으로도 한우가 더 장구한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더욱 큰 관심과 사랑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는 한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한우를 보전하고자 하는 염원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늘 11월 1일, 우리는 한우가 최고, 제일, 으뜸이라는 뜻을 담아 1년 삼백여순날 가운데 1자가 세 번 겹치는 이 날을 택일하여 해마다 이 날 하루만큼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한우의 맛을 즐기고 한우의 의미와 가치를 새기는 날로 삼아 한우가 세계만방에 우뚝 서도록 11월 1일을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한우의 날’로 선포하는 바이다.

2008년 11월 1일
전국한우협회 회장 남호경

전국 지역별 행사안내

지역	일시	장소	주요내용
서울	11.1~11.4	하나로마트 양재점	할인판매, 숯불구이
경기	11.1~11.5	남양주 도농체육공원	할인판매(구이존 운영)
강원	10.27~10.29	춘천시청 광장	할인판매
충북	11.3~11.5	하나로마트 청주점	할인판매, 숯불구이
충남	11.1~11.5	대전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할인판매, 숯불구이
전북	10.28~10.30	전북도청 다목적광장	할인판매, 숯불구이
전남	11.3~11.5	무안 중앙공원	할인판매
경북	11.1~11.4	경산 공설시장	할인판매, 숯불구이
경남	11.1~11.5	부산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할인판매, 숯불구이
울산	10.31~11.1	울주군청 광장	할인판매
제주	10.31~11.2	제주월드컵경기장광장	할인판매, 숯불구이
제주	11.3~11.5	제주시민복지타운	할인판매



2023 한우문화공모전 수상작

그림부문

대상



또띠의 하루
초등부 임소윤

최우수상



우리나라 소
유치부 유다정

최우수상



밤하늘 아래 캠핑장 소고기파티
초등부 김연수

우수상



고마운 소 함께해 즐겁소
유치부 김시아

우수상



우리 한우
유치부 이채운

우수상



한우가 있어 행복했던 가족여행
초등부 명재원

우수상



소고기가 제일 좋아
초등부 김산

장려상



파랑소이겨라
유치부 김현우

장려상



내친구 한우
유치부 김선율

장려상



한우고기를 먹는 행복한 우리가족♡
유치부 홍승우

장려상



삼화목장의 소들과 벚꽃
초등부 강수현

장려상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한우
초등부 조서율

그림 부문
수상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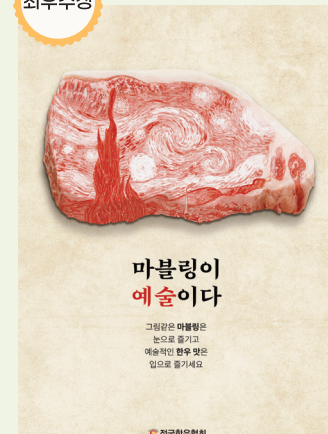
대상	초등부	임소윤	또띠의 하루
최우수상	유치부	유다정	우리나라 소
	초등부	김연수	밤하늘 아래 캠핑장 소고기 파티
우수상	유치부	김시아	고마운 소 함께해 즐겁소
	초등부	이채운	우리한우
장려상	초등부	명재원	한우가 있어 행복했다
		김산	소고기가 제일 좋아
	유치부	김현우	파랑소 이겨라
		김선율	내친구 한우
		홍승우	한우 고기를 먹는 행복한 우리 가족
		조서율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한우
장려상	초등부	강수현	삼화목장의 소들과 벚꽃

광고디자인 부문
수상 리스트

최우수상	박재현	마블링이 예술이다
우수상	그림장	미각의 잠금해제
장려상	권예지	牛뚝서다

광고디자인 부문

최우수상



마블링이 예술이다
박재현

우수상



미각의 잠금해제
그림장(장성화, 최그림)

장려상



牛뚝서다
권예지

캐릭터이모티콘 부문



우블리
유성훈



한우리와 다우리
미소천사(김재호)



힘찬이
최인환



호구호구
민희정

캐릭터이모티콘 부문 수상 리스트

대상	유성훈	우블리
최우수상	김재호	한우생각티콘
우수상	최인환	힘찬이
	민희정	호구호구

시상식

※ 행사 당일 참석 수상자



그림부문 대상 초등부
임소윤



그림부문 최우수상 유치부
유다정



그림부문 최우수상 초등부
김연수



그림부문 우수상 유치부
김시아



그림부문 장려상 초등부
강수현



광고디자인부문 최우수상
박재현



캐릭터이모티콘부문 대상
유성훈



캐릭터이모티콘부문 최우수상
김재호



캐릭터이모티콘부문 우수상
최인환



한우법 연내 제정 위해 총력

한우가격 수급안정 위한 국회 예산지원 확대 노력
‘제도적 법적 안정화에 최선’

김삼주 중앙회장이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24일 서울 서초동 소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한우법 제정을 임기 내 최대 과제라고 밝히고 한우법 연내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중심으로 한우산업의 주요 과제에 대한 김 회장의 의견을 들어 봤다.

‘한우산업 5대 근절·5대 확대 방안 마련’ 주요 과제

김 회장은 한우산업의 가장 큰 문제를 5가지로 축약하고 이를 근절하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5가지를 확대하는 ‘한우산업 5대 근절·5대 확대 방안 마련’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반복되는 소값 파동과 사료값 폭등, 경영비 생산비 이하 출하, 소규모 농가 폐업, 기업자본은 근절해야 할 5대 근절사항이고 한우 개량과 유전자원 보호, 한우 판매·소비촉진 확대, 한우 품질개선과 유통 활성화, 한우 유통업체 육성과 해외 시장·수출 기반 조성은 확대해야 할 5가지 사항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담겨있는 것이 한우법입니다.”

김 회장은 현재의 축산법이 환경과 지속가능해야 할 오늘날의 한우산업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한우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년 관세가 폐지되면 한우산업의 급격한 자금률 하락이 예상됩니다. 반복되는 한우 파동 사태를 근절하고 안정적인 한우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때문에 한우법 제정은 꼭 필요합니다.”

한우협회는 연내에 한우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의 한우농가들은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달 중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당이 발의한 법안을 연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한우



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의원 서명 운동을 전개, 65명의 의원이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한우법 제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우가격 방어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

연초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로 한우가격이 떨어지면서 한우파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우생산자들의 자구책이 마련됐고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할인행사를 하면서 한우가격은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연초에 한우 사육마릿수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사실 정부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면서 할인행사도 했고 여러 노력이 더해지면서 한우가격을 어느 정도

5대 근절

- ① 반복되는 소값 파동 근절** 법 제10조(한우수급조절)
- 중장기적인 한우수급 조절 정책 수립 및 자율수급 조절 유도
- ② 사료값 폭등 근절** 법 제12조(경영비용 부담완화)
-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 경영비용 부담완화 대책
- ③ 경영비 생산비 이하 출하 근절** 법 제13조(경영개선자금 지원)
- 한우산업 경영으로 인한 개선자금 지원
- ④ 소규모 농가 폐업 근절** 법 제15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 소규모 한우농가 컨설팅 및 방역 체계 구축
- ⑤ 기업자본 근절** 법 제22조(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 기업의 생산참여 원칙적 제외, 매년 기업의 생산참여 실태 파악

5대 확대

- ① 한우개량 및 유전자원 보호** 법 제5조(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한우토종 유전자원 보존 및 품종 육성
- ② 한우 판매 및 소비촉진 확대** 법 제17조(소비촉진)
- 학교·군·지자체 단체급식 등 시장개척 및 소비목표 정책·홍보 시행
- ③ 한우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 법 제18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 거래규격, 품질표시 보급, 한우유통구조 개선 및 다양화
- ④ 한우유통업체 육성** 법 제20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 민간의 한우 유통업체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수립
- ⑤ 해외 시장 및 수출기반 조성** 법 제21조(수출기반조성계획)
- 해외 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제공, 국제협력 촉진, 대외 홍보

방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추석 때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으로 한우 선물세트 수요가 늘면서 고무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역별로 한우를 중심으로 한 축제가 대대적으로 펼쳐지면서 소비진작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을 기점으로 한우가격이 더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럼피스킨 발생 등으로 도축이 지연되면서 한우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도축마릿수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도축두수 증가로 도매가격이 하락하고 농가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소비심리마저 위축되면서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우 생산비 기준 한우 1두당 약 2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내년에는 도축두수 증가로 적자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회장은 한우수급 안정과 수출 활성화 등 한우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우 가격하락, 경영비 상승 등 농가 경영 악화 상황 등 경착륙으로 인한 악순환 방지를 위해 수급안정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신규 개척 한우 수출시장 활성화 및 한우 신규시장 안정적 안착을 위한 지속적 지원 등을 위해서도 농가거출금 수준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회장은 지금의 한우산업에 닥친 침체가 한순간에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서서히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내년 도에는 수출 폭을 넓혀서 국내 소비에 안정성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도별 수출 실적

연도	수출물량 (Kg)	수출금액		Kg당 수출가격(\$)	전년대비	
		(천\$)	(원)		물량	금액
2016	47,885	3478.3	4,191,351,500	72.6		
2017	57,061	3308.9	3,533,905,200	58.0	19.2%	-4.9%
2018	65,245	3325.4	3,711,146,400	51.0	14.3%	0.5%
2019	51,616	2910.0	3,422,160,000	56.4	-26.4%	-8.4%
2020	48,882	3098.2	3,423,511,000	63.4	-5.6%	6.1%
2021	38,764	3016.8	3,586,975,200	77.8	-26.1%	-2.7%
2022	44,359	3062.4	3,782,064,000	69.0	14.4%	1.5%

사료구매자금 확대 등 예산 확대 힘써

사료값 파동이 6-7년에 한 번씩 발생하고 있고 사료값이 농가 생산비 비중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사료가격 파동을 대비하고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회장의 생각이다.

“농가 생산비 부담을 고려한 사료구매자금 예산 2조원, 금리 1%로 확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비 부담, 경영악화 등을 고려해 현재 2년거치 일시 상황에서 3년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사료가격안정기금 마련도 필요합니다.”

김 회장은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지원 예산이나 증액을 비롯해 전략작물직불사업 지원, 조사료 장거리운송비 사업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한우 예산 증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수출작업장 지정 등 한우수출 지원 이뤄져야

최근 한우산업의 구원투수로 나선 수출 분야와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는 지적이다.

“한우고기 수출 가능국가는 초기의 홍콩을 넘어 마카오UAE,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5개국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현재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와 협상 중에 있으니 K-푸드의 인기를 타고 한우 수출국이 얼마나 확대될지 기대가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본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자체와 협력해 한우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공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우 사육두수(공급), 한우고기 수출가능국(수요), 질병 발생, 수출국 현지 상황(외부요인) 등을 고려한 한우고기 수출 확대 계획수립 및 예산 지원이 절실합니다.”

김 회장은 한우고기 수출물량을 확대를 위해 한우수출지정농장, 한우수출업체 등 한우수출 인증 제도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음성(부천)공판장 수출작업장 신청과 지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수출에 필요한 물량 확보를 위해 3배수의 도축 시행으로 수출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경매 시행으로 수출업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한한우 사료 농가를 찾아서

‘하루의 첫 눈맞춤’ 소들과 시작 자타공인 육종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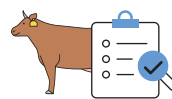
한우개량을 농사에 비유할 때 좋은 토양을 암소, 우수한 종자는 수소라고 말한다. 농작물을 풍성하게 수확하기 위해서는 비옥한 토양과 우수한 종자가 있어야 한다. 한우개량도 마찬가지로 우수한 정액 확보와 암소집단의 개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한우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강원 홍천에서 30여 년 동안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박시덕 덕현농장 대표.

2020년에 역대 강원도 내 생체중 최고기록인 1,185kg보다 54kg이나 많은 1,239kg을 달성하고 도체중은 전국 최고기록인 817kg을 갱신한 824kg의 슈퍼한우를 출하하며 한우 농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박 대표의 사육 노하우를 듣고자 강원도 홍천으로 가봤다.

☑ 농장 경영체크 포인트

30여 년 동안 일관사육
철저한 개체 관리



전국 최고의 한우 생산 위한
육종 관리



생산비 낮추고 영양 높이기
맞춤형 사료 자가배합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를 온전히 소에 집중

“농촌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이하는 게 사실이지만 매일 오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우를 본격적으로 사육하기 시작한 때부터 농장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소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매일 같은 루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오전 4시 사료를 주기 위해 목장에 간다. 하루의 첫 눈맞춤을 농장의 소들과 시작하고 간밤에 무슨 일이 없었는지 세심하게 챙긴다. 이는 소가 필요로 한 영양소, 질병 발생 가능성, 목장의 내부 상태 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옛말에 ‘소도 주인을 알아본다’라는 말이 괜히 있지는 않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아버지가 소를 사육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농장 일이 익숙

했습니다. 소를 사육하면서 생긴 노하우도 있지만 그 시절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면서 자동적으로 습득한 것들이 많습니다. 유년시절 눈 뜨면 우사로 향하던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세심하게 농장 관리를 한다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냄새와도 연결된다. 예전보다 축사의 냄새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박 대표의 목장은 더더욱 다른 곳보다 냄새가 나지 않았다.

또한 소에서 윤기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털이 정갈하고 깨끗했다. 소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보던 그의 하루는 해가 다 넘어간 오후 9시가 돼서 끝났다.

“현재 사육하고 있는 소 600마리는 외부에서 사온 소가 한 마리도 없고 목장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들입니다. 처음에 5마리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렇게까지 소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더 많은 정이 가고 가족과 똑같다고 생각합니



철저한 개체 기록관리...600마리 소 일관 사육
2021~22년 연속 강원도 한우능력평가대회 1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세심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외부에서 송아지를 사서 키울 생각은 없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육종 농가… 824kg 슈퍼한우 출하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한우를 사육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개체기록을 꼼꼼하게 했죠. 암소는 모계·부계 번호, 출생일, 산차수, 후대축 성적, 수정일 등을, 수소는 출하월령, 생체중, 도체중, 도체성적 등을 기록했습니다. 적어도 소를 사육하는 농가 중에서 최고는 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이었죠.”



본격적으로 소를 사육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한우 육종농가로 선정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펼쳤지만 사육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사육 규모를 늘리고 두 번째 도전 만에 육종 농가로 선정될 수 있었다.

“보증씨수소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개량을 통한 효과도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죠. 적어도 4~5년 정도는 지나야 개량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농가들이 우량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유전능력평가 결과가 우수한 몇몇 개체의 정액을 희망하는 것도 단기간에 개량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기 정액은 선정될 확률이 낮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덕현농장에서 출하된 소의 등급 출현율은 지난해와 올해 강원도내에서 1등을 차지했다. 또한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한우능력평가 대회에서도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한우 사육 초기부터 꼼꼼하게 개체를 기록한 것이 몇 년 전부터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소를 매년 반복적으로 출하하고 있죠. 전국 1위를 목표로 개량에 지속적으로 매진할 생각입니다.”

소 상태와 출하에 맞춰 단계별 사료급이 차별화

박 대표가 한우 농가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유는 소의 상태와 출하에 맞춰 사료를 달리 급이기 때문이다.

부족한 영양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가 배합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지난 10월 농장 방문 당시 눈에 띄었던 점은 쌀 튀

단계별 맞춤 자가배합+번식우 대한한우사료 급이 가격 저렴·품질 우수…주변농가 구매 문의 잇달아

밥이 우사 곳곳에 놓여 있던 것이다. 기자의 물음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을 통해 튀밥의 성분을 알게 됐고 인근 가공공장에서 남은 튀밥을 가져와 사료와 섞어 급이했을 때 효과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자가분석을 통해 비타민 등을 사료에 첨가하기도 한다.

그는 자체 배합사료와 더불어 TMR, 대한한우 사료를 급이하고 있다. 전체 600마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번식우 250마리에 대한한우 사료를 급이하는데, 타 사료 대비 가격은 저렴한 반면 품질은 우수하기 때문이다.

박 대표의 농장을 찾은 농가들에게 대한한우 사료를 사용할 경우 농가 생산비를 낮출 수 있고 번식우에게 적합하다고 밝혀 주변 지역 한우 농가들도 대한한우 사료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원주의 한우 농가도 대한한우 사료 사용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처음 대한한우 사료 사용을 희망했을 때 전국한우협회 화천지부를 통해 사료를 공급받았습니다. 공급 가능량을 맞추기 위해 2개 농가와 함께 대리점 형태로 홍천한우프라자에 법인을 설립했고 지금은 이 곳을 통해 사료를 공급받고 있죠. 다른 농가에서도 대한한우 사료의 구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문의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우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사료라는 뜻이죠.”

박 대표는 대한한우 사료가 일반 사료보다 20% 이상 저렴하다고 말한다. 갈수록 생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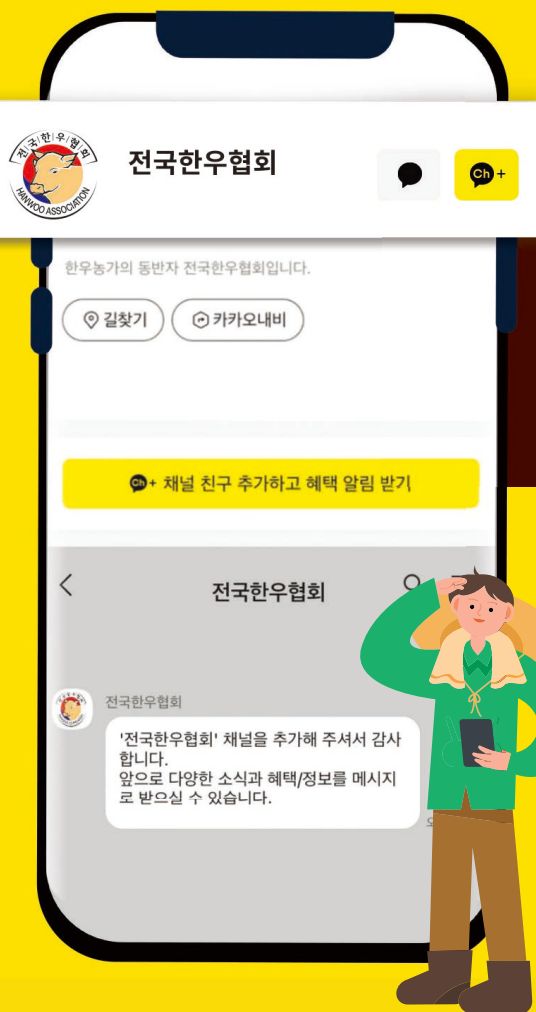
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육마릿수 50마리 이하 농가가 일반 사료를 구매해 급이할 경우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100마리 이하 농가가 급이하면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이라고 말하는 그는 가격과 품질이 우수한 대한한우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한우협회 카톡친구해요!

한우산업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친구추가



- ✓ 농가 소식지 한우마당 뉴스
- ✓ 한우산업 정책·제도·사업 동향
- ✓ 협회 활동 사항 및 행사 정보
- ✓ 기타 회원 전용 서비스 제공



STEP 1

카카오톡 접속 후
우측 상단 검색
표시를 누른다.

STEP 2

상단 검색바에
전국한우협회를
검색한다.

STEP 3

채널 추가 버튼을
누르면 끝



전국한우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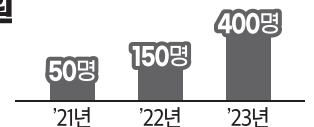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대행등록기관

일 잘하는 근로자 장기체류 비자 변경 가능



비속련 외국인근로자 E-9 비자에서 E-74(장기취업비자)로 변경하면
출국만기가 없어지고 계속 농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단, 전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축어업에는 연간 쿼터제를 실시하여 점수제 선발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근로자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가능 인원



본 비자코리야는 2019년부터 전국의 농장(양돈, 양계, 작물)의
많은 성실한 근로자를 출입국행정정치를 통하여 비자변경 질
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약 300여 농장 출입국 절차 대행 진행



E-9에서 E-74으로 비자변경시 장점

- ✓ 농장주는 성실한 근로자를 출국만기 걱정없이 고용 가능
- ✓ 근로자는 만기 걱정없이 국내에서 평생 취업이 가능
- ✓ 근로자는 부인과 아이들을 초청하여 안정적인 체류 가능
- ✓ 비자 변경후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이직 불가
- ✓ 한 농장에서 2명까지 가능
- ✓ 한국인 고용보험가입자 인원의 30%까지 변경 가능



본 비자코리야는 출입국행정대행사사무소로 전국의 농장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중입니다.
농장주와 근로자의 불편없는 행정절차 대행 경험으로 많은 농장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출입국행정대행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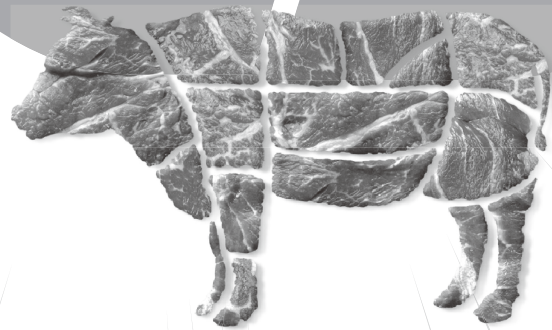
비자코리야

C.P.010-3324-1347

E.M. kty8018@hanmail.net

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 수입 허용 강력히 반대한다!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 없이,
밀어붙이기식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를 규탄한다



- 유럽연합 쇠고기 수입 성명 발표 -

유럽연합(EU) 쇠고기 수입의 발판이 될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가 10월 31일(화) 14시,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매년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EU산 쇠고기까지 합세할 우려 속에, 가뜰이나 럼피스킨으로 초비상이 걸려 방역과 고균분투하는 한우 농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EU산 쇠고기는 2000년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BSE 발생국의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EU는 광우병이 잠잠해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정형BSE는 아일랜드에서 2020년, 프랑스는 2016년 발생한 사례가 있어 국민 건강에도 우려스럽다.

또한, 2020년 기준 EU의 쇠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에 달하며, 이중 프랑스는 EU내에서도 비중이 21.2%에 달하는 수출강국이다. 문제는, EU 수입 허용이 프랑스·아일랜드에 국한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쇠고기 수출을 추진하려는 EU소속 국가는 독일·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 8개국도 수입허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이면 EU산 쇠고기의 관세가 철폐돼 수입이 물밀 듯 들어올 것이 자명하다.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그간 정부는 각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수입위생조건을 허용하며 피해산업에 대한 보호 및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켜지거나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다. 1조원을 기부한다면 FTA 농어촌 상생기금은 7년간 21% 수준에 그쳤으며, 한우 기반 안정을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발동조차 하지 않는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연동을 할 수 있던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폐지됐으며, 도축장 전기세 인하는 2024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우산업 보호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한 ‘한우법’을 국회의 여야당에서 모두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EU의 제소를 핑계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번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법 제정 등 최소한의 약속 없이 추진되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수입허용에 적극 반대하는 바이다. 현재도, 한우농가는 생산비 폭등 및 소값 하락으로 1두당 200만원의 손해를 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러-우 및 이-팔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민의 식량주권과 건강, 그리고 한우농가와 한우산업 근간 보호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전국의 한우농가가 지켜보고 심판할 것이다.

전국한우협회 (2023. 10. 26)



참고
자료

프랑스·아일랜드 수입위생조건(안) (10.31)

■ 프랑스·아일랜드 현황 및 문제점

- 쇠고기 수입동향을 보면 매년 증가세로 유럽연합(EU)의 수입이 허용된다면, 한우농가들의 경영 악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음.
 - 쇠고기 수입량: (2018) 41.54만톤→(2019) 44.35만톤→(2020) 44.3만톤→(2021) 46.9만톤→(2022) 47.45만톤
 -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우농가 1두당 소득: -200만원 (도매경락가 - 생산비)
 - ※ 평균 도매경락가(8,775천원, 약 19,500원×도체중 450kg) - 생산비(10,700천원, '23년)
- EU의 쇠고기 생산량은 미국·브라질의 뒤를 이어 전 세계 3위이며,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 3개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EU내 비중이 21.2%, 17.8%, 11.1%에 이를 정도로 수출강대국임
 - 쇠고기 수출 재개를 추진하는 유럽 국가는 이번 수입위생조건 심의를 하는 프랑스·아일랜드를 비롯해, 독일·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 8개국의 쇠고기 수입허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 현재는 프랑스·아일랜드의 쇠고기 수출이 EU역내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지만, 수입위생조건 허용 이후 국내로 수출이 확대될 여지가 큼
- 아일랜드 및 프랑스는 BSE발생국으로 국민 건강의 안전 우려
 - 최근 비정형BSE 발생 현황: 아일랜드(2020년), 프랑스(2016년) 발생
- 2027년부터 EU산 쇠고기는 관세가 철폐돼 가격경쟁력이 높아짐
 - ※ EU산 쇠고기는 미국산보다 현재도 가격경쟁력에서는 우위에 있음
 - ※ 프랑스·아일랜드의 가격은 EU산 쇠고기 내에서는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나, 수입의 50%에 달하는 미국과 비교했을 경우 가격 우위에 있음

■ 수입위생조건(안) 주요 내용

BSE 발생국, ①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 ②특정위험물질(SRM) 제외, ③BSE 발생 시 검역 중단 후 공중보건상 위해가 없을 경우 해제 수출작업장은 한국 정부가 승인 등 네덜란드·덴마크와 동일 조건('19.7 수입 허용)

■ 한우산업 보호 및 안정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약속' 필요

1. 한우농가의 보호 및 안정을 위한 '한우법' 제정 요구

- '한우법'은 한우농가 보호 및 안정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 여·야의원인 홍문표의원('22.12.21)과 이원택의원('22.7.12)이 발의했으며, 반복되는 한우 파동 사태를 근절하고, 향후 2026년 관세화 폐지 이후 한우산업의 급격한 자금줄 하락이 우려되어 안정적인 한우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함

- ('22.7.1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 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12인)
- ('22.12.21) '한우산업기본법' 발의 (국민의힘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11인)

- 11월 8일 예정된, 농해수위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한우법' 논의 및 통과, 정부의 적극적인 찬성 요구
- 주요 내용으로 5대 근절 및 5대 확대 방안 마련
 - 반복되는 소 값 파동 근절(법 제10조. 한우수급조절)
 - 사료값 폭등 근절(법 제12조. 경영비용 부담완화)
 - 경영비 생산비 이하 출하 근절(법 제13조. 경영개선자금 지원)
 - 소규모 농가 폐업 근절(법 제15조.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 기업자본 및 기업의 한우산업 진출 근절(법 제22조.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 한우개량 및 유전자원 보호(법 제5조.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한우 판매 및 소비촉진 확대(법 제17조. 소비촉진)
 -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법 제18조.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 한우유통업체 육성(법 제20조. 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 해외 시장 및 수출기반 조성(법 제21조. 수출기반조성계획)

2. 수급조절 및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

- 최소생산비 수준은 유지할 수 있는 '가격안정보장제' 도입
 - 1985년, 1996년, 2011년, 2022년 벌써 네 차례의 소 값 파동으로 한우농가의 줄도산과 극단적인 선택 반복
 - 한우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장가격과 기준가격과의 차액 손실을 보전하는 가격안정보장제도 도입
- 공익직불제 한우부문 도입
 - 우리 민족 고유의 토종유전자원 보호, 농산부산물 처리를 통한 리사이클링, 경축순환, 분뇨처리 다각화, 저탄소·저단백 사료 지원 등 공익직불제 한우 도입

- 사료안정기금제도 및 사료구매자금 확대(금리 1%, 2조, 3년거치2년분할) 요구
 - 라-우, 아-팔 등 불안한 국제정세와 이상기후로 인한 세계곡물가 급등, 해외시장 변동에 따른 생산비 부담완화 및 장기적인 안정적 사료공급을 위해 사료안정기금 도입
 - 사료구매자금 확대: (24년 요구안) 금리 1.8→1%, 총액 9,450억→2조, 2년일시상환→3년거치2년분할상환
- 한우수출을 위한 예산 증액(한우자조금 예산 111억 증액)
 - 24년 한우고기 수출물량을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 음성(부천)공판장 수출작업장 신청 및 지정 필요: 현재 수출에 필요한 물량 확보를 위해 3배수의 도축 시행으로 수출업체 부담을 수출경매 시행으로 경감

3. 기존 FTA 보완대책 중 한우산업 관련 보완대책 요구

-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재개
 - : 2024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예산 188.8백만원 요청
($((\text{이차보전} 37.76\text{백만원} \times 5\text{개소}) * \text{이차율 } 2.36\% (\text{기준금리 } 4.16\% - \text{대출금리 } 1.8\%))$)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산지가격과 소비가격의 가격연동제 시행
 -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음식점 및 식육판매점 포함) 확대를 위해 국고 보조없이 저리 융자만으로 사업비를 확대한 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
 - ※ 이차보전(융자 80%, 금리 1.8%, 5년 거치 15년 상환), 자부담 20%(토지구입)
 - ※ 지원한도: 개소당 16억(융자 16억, 80% / 자부담 4억, 20%), 연5개소
-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완
 -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경우 2012년 2월 제도개편 이후 발동이 될 수 없는 구조
 - 기준 가격, 암소두수 기준삭제, 보상금 상향 건의
- 도축장 전기세 인하 일몰 폐지
 - 2014년 한-호주, 한-캐나다 FTA 시 도축장 전기요금을 10년간(2015.1.1.~2024.12.31.) 20% 감면, 전기요금 할인으로 인해 도축수수료 인상을 억제하고 할인폭만큼 농가 환원
 - 도축장 전기세 인하 일몰 폐지로 2025년 이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
- FTA 농어촌상생기금 10년 연장 및 1조원 기금 시까지 유지
 - 현재 7년이 지났지만 1조원 모금의 21%수준, 목표액 모금까지 유지
 - 정부의 농어촌상생기금 업체 인센티브 강화
- 조사료 장거리운송비 지원사업 예산 존치
 - : 조사료이용촉진비 14억 예산 건의
 - 24년 생산유통구축비 정부예산 축소(장거리운송비 전액 삭감)
 - 사업 성격 및 명칭 변경(현행: 장거리운송비→조사료이용촉진비)으로 정부예산 근기 마련



김삼주 회장 국회 참고인 출석 EU쇠고기 수입 통과 저지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농해수위 심의 통과 못해

지난 10월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발병으로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날 출석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유럽은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세계적으로 BSE 발생은 거의 0에 가까워졌고 세계동물보건기구도 위험무시국 지위를 가진 국가에 대해 별도의 교역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국내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한우 사용 농가 보호 등을 위해 특정 위험 물질이 제거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등 국제 기준보다 강화된 수입 위생 조건안을 마련했다”며 절차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한 협조를 부탁했다.

협회, 정부는 상대국이 아닌 자국산업 보호부터 해야 EU 관세철폐 이후 쇠고기 수입량 대폭 증가 우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삼주 회장은 국회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가 지난 21년 12월 농해수위 상정 이후,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약 2년여동안 계류한 점에 대해 국회에 감사인사를 먼저 전했다.

참고인 발언에서 “쇠고기 수입동향은 매년 증가세이며, 프랑스·아일랜드를 포함해 EU의 각 국가들의 수입허용이 된다 면, 농가의 자급율 하락 및 경영악화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EU는 세계 쇠고기 생산량이 세계 3위에 달하는 수출 강대국 연합체로 2027년 EU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수입량의 대폭 증가돼 한우농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기존 FTA 및 수입위생허용 시 피해는 농가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농가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우산업 보호 및 안정을 위해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 한우농가 앞에서 ‘최소한의 선제적 약속’을 해달라”고 강변했다.

함께 참고인으로 나선 남기준 한국소임상수의사회 권익보호위원장은 “프랑스는 광우병뿐만 아니라 WOA가 지정한 가축전염병인 ‘유행성출혈병(EHD)’ 발생국이다”며 “해당 질병은 현재 유행 중인 렘피스킨과 유사해 국내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퇴치가 매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유행성출혈병에 대한 방역 대비가 돼 있지 않은 만큼 수입을 재개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한우법 제정 수용 불가, EU 광우병 안전성 인정받아

그러나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국회 심의가 2년 넘게 늦어지면서 EU 차원의 WTO 제소를 노골적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프랑스, 아일랜드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소비층이 달라 한우소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농가 지원대책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편안을 내년 초에 발표하는 등의 대안을 내놨지만 ‘한우법’ 제정에는 선을 그었다.

정황근 장관은 “한우산업은 쌀과 함께 매우 중요한 농업품목이다”면서도 “한우법의 경우 별도 제정보다 축산법의 보완 및 개정으로 한우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형평성, 효율성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삼주 회장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 보호해야”
여·야 국회의원 “농가 피해보전대책 선행” 지적
농식품부, 농가 지원방안 적극 마련할 것…한우법 제정엔 반대

국회, 지난 2년간 정부의 준비소홀 지적 한우산업 보호 대책 수립 등 농가안정장치 마련 적극 나서야

협회와 정부측 팽팽한 가운데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우농가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한목소리로 지적하며 선제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당시에는 피해를 보전해주겠다 약속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허언에 불과한 결과로 귀결되는 사례가 왕왕 있었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도 “수입 물량이 들어오면 우리 한우 농가가 어쩔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데, 지금 축산업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산업을 지킬 것이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물과 기름처럼 한우협회는 요구하고, 농식품부에서는 검토는 하는데 실행되는 건 없고, 이래서는 안 된다. 종합적·구체적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보탰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료비 폭등으로 송아지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정부는 ‘한우법’ 제정이나 사료구매자금, 한우 수출지원 예산 확대 등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유럽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불러올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는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지난 2년간 프랑스에서 발병하는 여러 질병에 대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홍문표 의원 또한 “향후 다른 EU 국가들도 모두 개방을 요구할 텐데,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향후 2년간 농가 피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해당국에 설명하고, 정부와 농가가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계류된 ‘수입위생조건(안)’은 추후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안건은 농해수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 통과시 정부는 수입위생조건(안)을 확정고시하고, 수출작업장을 승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5대 요구사항

① '한우법' 제정

- 국회 여야당 의원인 홍문표의원과 이원택의원 모두 발의한 만큼, 정부에서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꼭 수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회에서도 농해수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한우산업 근간을 지키고, 한우농가 보호를 위한 '한우법 제정'은 올 회기년도 안에 꼭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② 송아지생산안정제도 개편

- 현재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경우 2012년 2월 제도 개편이후 발동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가임암소 두수 기준 삭제, 기준가격과 보상금 상향 개편에 힘써주시십시오.

③ 사료값 안정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제도 마련

- 농가사료구매자금의 확대를 위해 금리를 1.8%에서 1%로, 예산 총액을 9,450억에서 2조로, 상환기간을 2년일시상환에서 3년거치2년분할로 건의합니다. 이는 과한 것이 아닌 2022년 재작년 수준일 뿐입니다.

④ 생산비 절감 및 국내산 조사료 확대 대책 시급

- 전락작물 직불 조사료 지원금 430만원에서 53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을 요구하며,
- 사일리지 제조비는 톤당 6.3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합니다. 또한, 종자비 보조는 현재 기금보조 30, 자부담 70에서 기금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으로 증액해 주시길 바랍니다.
- 조사료 장거리운송비 지원사업은 2024년 운송비금액 약 14억 정도가 전액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존치를 부탁드립니다.

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재개

- 기존 부진했던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확대를 위해 국고 보조 없이 저리 용자로만 사업비를 확대해서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금액 약 1억9천여만원 요청드립니다.

※참고 : 1개소당 16억(용자 16억 80%, 자부담 4억 20%), 연 5개소

제 26 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출하 · 도축 · 경매

출하일	2023년 12월 4일(월)
도축일	2023년 12월 5일(화)
경매일	2023년 12월 6일(수)
장 소	농협경제지주 음성축산물공판장

※출품축 이외의 개체는 출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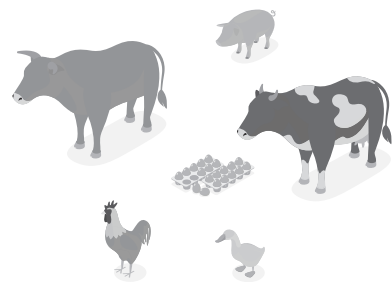
시 상 식

일 시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장 소	축산물품질평가원(세종홀)

- 주 최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사)전국한우협회
주 관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추진협의회
후 원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음성축산물공판장 중도매인조합

정부, 축산자조금 개편 등 관조화 시도 철회 “축산단체와 협의되지 않으면 추진 안하겠다”

농식품부, ‘축산 생산자단체 강경 대응’에 입장 밝혀
자조금 개편 반대 입장-대응은 계속 유지 ‘예의주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조금 개편 관련, 축산 농가의 강력한 반발에 계획을 철회하고 물러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축산자조금의 사업기능강화와 특수 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축산단체들은 정부가 농가의 반대입장을 밝히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농식품부의 축산자조금 개편안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잠정 보류 상태다. 축산생산자 단체들의 강경 대응에 농식품부는 축산단체와 협의되지 않으면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산자조금 개편을 둘러싼 갈등과 추진경과를 자세히 살펴본다.

농식품부, 축산자조금 관조화 계획 발표

농식품부는 축산자조금의 회계 투명성 객관성 확보, 법인격 없는 조직 운영, 방역비용 부담 등 기존 홍보 위주 용도에서 수급,방역, 환경등에 쓰이도록 변화를 추구한다며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 계획을 알렸다.

자조금 사용용도를 소비홍보에서 방역,수급,질병 등으로 전환하지만 국가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 거출금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가칭 자조금관리원으로 특수법인화를 통해 자조금 운영방식을 재정립하되 축산단체는 자조금 설치권과 자조금관리원의 이사회 추천권을 가지며 거출, 운영 등은 자조금관리원이 갖는다. 의사결정 구조가 ‘관리위원회-대의원회’에서 ‘이사회-총회’로 변경되며 농가는 이사 추천권만 주어지므로 권한과 역할이 크게 축소된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통제 하에 자조금을 활용한다는 계산이다.

김삼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전국한우협회장)은 “당초 축산농가가 스스로 자조금을 거출해 소비·홍보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자조금을 출범시켰는데 자조금관리원이라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환해 정부가 전체 자조금 예산을 컨트롤 하겠다고 한다”며 “자조금의 주인인 농가들은 결국 돈만 내고 어떤 역할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축산생산자단체, 강력 반발

우리 협회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차원으로 안건을 공론화하여 강하게 항의했다.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가가 거출한 기금으로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축산농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하고, 자조금을 특수법인화하면서 농가의 참여를 대폭 축소·제한하고,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자조금 재원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명령으로 이뤄지는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소득안정자금을 자조금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지원보다 축산자조금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의무



정부의 축산자조금 제도개편 방향

□ (수급조절) 축산자조금의 수급조절 방법*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자조금이 거출금을 활용하여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농수산자조금법」상 생산량 과잉 시 자출 출하조절(저품위 상품 자출폐기) 절차를 준용
- (현행) 소비촉진, 수급조절, 유통, 교육 등에 활용 → (신설) 방역, 환경관리 등 용도를 다양화하여 자조금의 책임성을 강화
 - 수급안정예비비용을 확보하고, 농가에 수급상황에 대한 신호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공급과잉·가격 상승 시기 거출금 인상 논의 의무화

□ (운영방식) 자조금사무국을 별도 법인화하고, 내부 인적 구성 개선

- 자조금 총 운영규모가 800억에 육박하는 등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격 없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 단순 소비촉진이 아닌, 수급조절·방역·환경 문제 등 공적인 역할에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자조금별 별도 법인화
- 법인화 시 현행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법인 이사회로, 자조금을 납부한 축산농가·관련 업체 등으로 총회를 구성
 - 자조금 운영 투명성,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축산단체가 추천하고 농식품부에서 지명하는 위원 중 마케팅전문가·회계사 등을 추가 구성 추진
- 거출금 10억 이상의 자조금은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
- 자조금위원회에서 지속 지적한 사항인 정부의 자조금 운용계획 승인기한은 법제화 추진

향후계획

□ 협의를 거쳐 「축산자조금법」 초안을 마련하고, 초안을 통해 추가 논의 추진(~9월) 후 정부 입법 절차 진행('23.10월 ~ '24년)

※ 협회와 협의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현재 무산되었음.

자조금을 임의자조금으로 전환하거나 자조금 폐지 및 거출반대 운동까지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축단협은 지난 9월 6일 대구 엑스포에서 진행된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막식 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축산자조금 법인화 추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우, 한돈, 낙농, 양계 등 축단협 소속 주요 생산자 단체장들은 축산농가 스스로 거출한 축산자조금을 정부가 이해 당사자와 의견 조율 없이 강제적으로 추진하면 강한 저항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김삼주 회장은 “정부안대로라면 농가는 돈 내는 기계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축산단체 의견 수용이 불가하다면 축단협 차원에서 자조금 거출 중단까지 고려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이상 정부 멋대로 하게 가만히 볼 수 없다”며 국회 기자회견 등 총력전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자조금 개편안 반대 국회 기자회견 등 총력전

자조금의 특수법인화를 위해서는 현재 단체의 청산 절차 후 재구성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농가 동의로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만 정부의 이런 시도가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는 4단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자조금 개편안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선 1단계에서는 9월 중으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농식품부의 부당한 축산자조금 개편안에 대해 축산단체의 입장을 알리기로 했다.

2단계에서는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축산단체의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는 정부의 자조금 보조금 수령을 거부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4단계에서는 전 축종 대상으로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통해 축산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조금 개편을 강행한다면 자조금 거출 중단까지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정부 한발 물러서며 '자조금 개편 계획 철회'

축산단체들의 강경한 입장에 정부는 축산자조금 제도개편과 관련해 축산단체와 협의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매듭지어지는 모양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국인 우리 협회는 당초 지난 9월 18일 월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조금 개편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사)전국한우협회
(경유)
제목 축산자조금 제도개편 방향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불응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축산자조금 제도개편 방향.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인생략

축산자조금 제도개편 방향

□ 자조금 제도개선 방향은 초기 논의 단계이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할 계획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선 사항 관철은 없을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

□ 법인화는 주요 축종의 자조금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자조금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하였으나,

○ 축산단체 등과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 정부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탄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하루 전인 17일 일요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단체와 협의되지 않으면 축산자조금 제도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오며 따라 단체장 회의를 거쳐 기자회견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가 축산자조금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 2020년 이후 3년만에 또다시 자조금 관조화 불씨를 지핀 정부의 태도에 예의주시하며 자조금 개편 반대 입장과 대응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축산자조금 개편안은 폐기가 아닌 보류상태다. 축산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잠정 보류에 들어갔지만 정부의 축산자조금 개편안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축산단체들의 생각이다.

우유자조금과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 회의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출하며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자조금의 의미 환기, 농가자율성 담보 법개정 필요

자조금(自助金)은 농가가 산업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만든 공동의 기금으로 축종별 소비홍보 및 농가 교육, 조사연구, 제도 사업 등에 사용된다. 축산자조금법의 모태는 2002년 제정된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다.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후 2009년 정부의 자조금 관치화(官治化) 시도가 있었다. 자조금의 법인화로 농식품부 관피아 인사가 내려올 경우, 예산승인부터 인사권까지 당초 제도취지와 다르게 정부 관조금화로 변질될 우려로 농가의 격렬한 반발이 있었고 결국 법인화 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실제로 정부 법인화 시도로 민간에서 공공기관화 된 축산물품질평가원, 낙농진흥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은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물가안정 및 질병·방역사업 재정보조에 자조금을 활용하고 법인화를 통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일방적 강탈을 시도하고 있다.

자조금은 오히려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을 축소하고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게 축산단체의 입장이다. 정부는 마치 축산단체를 길들이기 하듯 예산승인을 지연시켜 오히려 정부가 시의적절한 운용·관리 및 효율적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최근 사업승인: *2022년 5월 10일/ 2023년 4월 7일)

또한,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논의로 방역 및 환경개선에 활용할 정부예산을 자조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부적절하다. 자조금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용처로 활용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김삼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전국한우협회장)은 “자조금은 자유무역 시장개방화 속에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법제화 되었고, 정부의 역할 보다 축산 지도자와 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자율적·독립적 결과물이다”며 “정부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자조금 제도 개편을 강력 규탄하며, 이를 계기로 자조금법 개정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한우 동향 분석

2023. 10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한우사육】 2023년 9월 한우 사육마릿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감소, 가임암소 마릿수 전월 대비 감소

- 한우 사육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1.18% 감소, 전월 대비 1.35% 감소
- 가임암소 전월 대비 0.76% 감소
- 연령별 사육두수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 9.75% 감소, 1세~2세는 2.92% 증가, 2세 이상 1.30% 증가



【등급판정】 9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 1등급 이상 출현율 74.4%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전월 대비 증가
- 1**등급 : 25.0%, 1*등급 : 25.0%, 1등급 : 24.5%



【도매 및 산지가격】 9월 한우 도체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큰 소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암소는 전월 대비 상승, 송아지(6~7개월령)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 한우 큰 소(600kg) 암소 가격 전년 동월 대비 12.2% 하락, 전월 대비 7.7% 상승(수소는 34.7% 하락, 1.3% 상승)
- 한우 암송아지(6~7개월령) 가격 전년 동월 대비 13.0% 하락, 전월 대비 10.2% 상승(수송아지는 8.3% 하락, 10.3% 상승)



【배합사료·정책판매】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정책 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

- 9월 배합사료 누적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1.17% 증가
- 9월 정책 누적 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10.21% 감소



【쇠고기 수입】 9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28.5% 감소, 전월 대비 16.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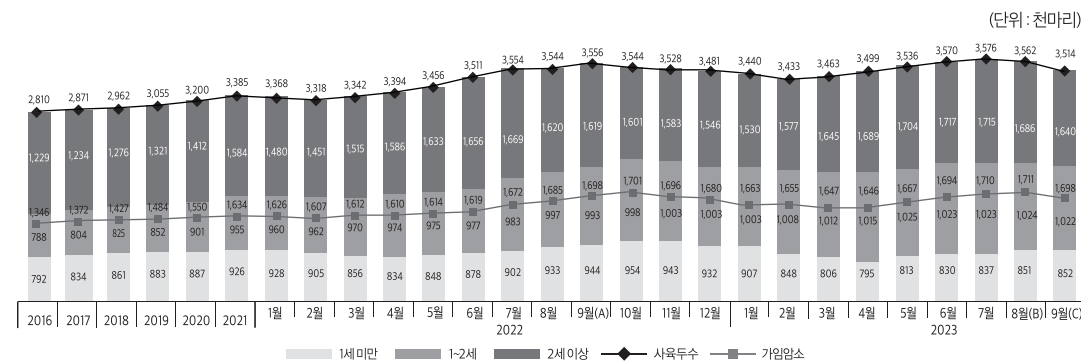
- 전월 대비 냉동육 수입 15.7% 감소, 냉장육 18.3% 감소



1. 한우 사육 동향

◎ 2023년 9월 한우 사육마릿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감소, 가임암소 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동일, 전월 대비 감소, 한우 수급 안정화 및 가격 하락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농가 자율 감축을 위한 노력 필요

- 한우 사육마릿수는 351만 4천 마리로 전년 동월(355만 6천 마리) 대비 1.18%(4만 2천 마리) 감소, 전월(356만 2천 마리) 대비 1.35%(4만 8천 마리) 감소
- 가임암소는 169만 8천 마리로 전년 동월(169만 8천 마리) 대비 동일, 전월(171만 1천 마리) 대비 0.76%(1만 3천 마리) 감소
- 연령별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은 9.75%(9만 2천 마리) 감소, 1~2세는 2.92%(2만 9천 마리) 증가, 2세 이상은 1.30%(2만 1천 마리) 증가
- 사육 농장수는 84,097농장으로 전년 동월(88,471농장) 대비 4.94%(4,374농장) 감소, 전월(84,504농장) 대비 0.48%(407농장) 감소
- 농장 당 사육마릿수는 41.8마리로 전년 동월(40.2마리) 대비 3.98%(1.6마리) 증가, 전월(42.2마리) 0.95%(0.4마리) 감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소이력관리현황'

【그림 1】 한우 사육 두수 현황

【표 1】 한우 사육 현황

(단위 : 호, 천 마리, %, 마리)

구분		농장수	사육두수	가임 암소두수	송아지 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21		89,423	3,312	1,578	88.2	873	931	1,508	36.9
2022	1월	89,559	3,368	1,626	61	928	960	1,480	37.6
	2월	89,378	3,318	1,607	58.2	905	962	1,451	37.1
	3월	89,378	3,342	1,612	44.1	856	970	1,515	37.4
	4월	89,343	3,394	1,610	87.7	834	974	1,586	38.0
	5월	89,242	3,456	1,614	89.5	848	975	1,623	38.7
	6월	89,153	3,511	1,639	78.6	878	977	1,656	39.4
	7월	89,016	3,554	1,672	66.5	902	983	1,669	39.9
	8월	88,633	3,544	1,685	46.8	933	991	1,620	40.0
	9월(A)	88,471	3,556	1,698	41.2	944	993	1,619	40.2
	10월	88,137	3,544	1,701	34.1	945	998	1,601	40.2
	11월	87,784	3,528	1,696	32.4	943	1,003	1,583	40.2
	12월	87,470	3,481	1,680	31.7	932	1,003	1,546	39.8
2023	1월	87,160	3,440	1,663	57.4	907	1,003	1,530	39.5
	2월	86,861	3,433	1,655	67.4	848	1,008	1,577	39.5
	3월	86,524	3,463	1,647	115.8	806	1,012	1,645	40.0
	4월	86,145	3,499	1,646	125.7	795	1,015	1,689	40.5
	5월	85,616	3,536	1,667	116.8	813	1,020	1,704	41.3
	6월	85,261	3,570	1,694	93.8	830	1,023	1,717	41.9
	7월	84,897	3,576	1,710	82	837	1,023	1,715	42.1
	8월(B)	84,504	3,562	1,711	-	851	1,024	1,686	42.2
	9월(C)	84,097	3,514	1,698	-	852	1,022	1,640	41.8
	전년동월(C/A)	△4.94	△1.18	0.00	-	△9.75	2.92	1.30	3.98
증감률	전월(C/B)	△0.48	△1.35	△0.76	-	0.12	△0.20	△2.73	△0.95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2.

한우
등급판정
동향

◎ 2023년 9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 9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는 109,316마리로 전년 동월(61,593마리) 대비 77.5%(47,723마리)

증가, 전월(91,534마리) 대비 19.4%(17,782마리) 증가

- 성별비율은 암소 50.7%, 수소 0.8%, 거세우 48.6%

* 전월대비 : 암소 0.9%p↓, 수소 0.4%p↑, 거세우 0.6%p↑, 거세율 0.7%p↓

[표 2] 한우 성별 등급판정 두수

(단위 : 마리, %)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율
전년누계 (’22.1.~9월)	637,132	303,253	4,863	329,016	98.5
	100.0	47.6	0.8	51.6	
금년누계 (’23.1.~9월)	716,517	370,315	4,127	342,075	98.8
	100.0	51.7	0.6	47.7	
전년동월 (’22.9월)	61,593	29,197	559	31,837	98.3
	100.0	47.4	0.9	51.7	
전월 (’23.8월)	91,534	47,197	383	43,954	99.1
	100.0	51.6	0.4	48.0	
당월 (’23.9월)	109,316	55,397	839	53,080	98.4
	100.0	50.7	0.8	48.6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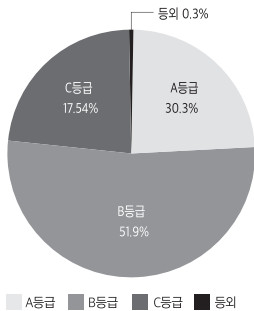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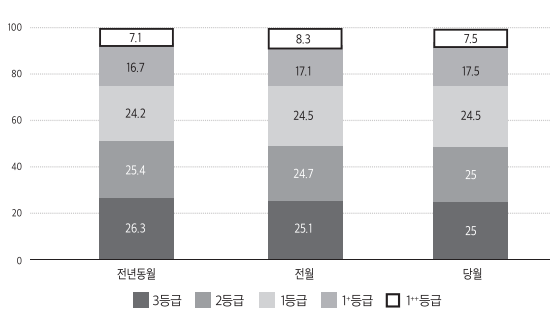
◎ 9월 한우 등급판정 결과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74.4%, 전년 동월 대비 1.5%p 감소, 전월 대비 0.1%p 증가

○ 9월 1등급 이상 등급별 출현율은 1**등급 25.0%, 1*등급 25.0%, 1등급 24.5%

-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은 전월(74.3%) 대비 0.1%p↑, 1**등급 0.1p↓, 1*등급 0.3%p↑, 1등급 동일

- 전년 동월(75.9%)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5%p↓, 1**등급은 1.3%p ↓, 1*등급 0.4%p↓, 1등급은 0.3%p↑

- 전년 누계(75.0%)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0.9%p↓, 1**등급은 0.5%p ↓, 1*등급 0.8%p↓, 1등급은 0.4%p↑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그림 2]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좌) 및 육량 등급 출현율(우)

[표 3] 한우 등급별 출현율 추이

(단위 : 두, %, %p)

구분		판정두수	육질등급						육량등급			등외
			1**	1*	1	소계	2	3	A	B	C	
2016		737,476	9.6	30.4	29.4	69.3	22.8	7.6	22.9	47.2	29.6	0.2
2017		742,536	10.1	33.3	28.7	72.1	20.3	7.4	21.2	47.1	31.4	0.3
2018		736,354	12.2	30.4	30.4	72.9	19.4	7.3	20.5	47.6	31.7	0.3
2019		765,297	15.7	28.3	29.9	74.0	18.6	7.1	20.7	48.2	30.8	0.3
2020		762,749	22.5	25.5	26.1	74.1	18.2	7.4	25.0	50.5	24.2	0.3
2021		794,238	23.8	25.8	25.3	74.9	17.5	7.3	24.4	52.4	23.0	0.3
2022		869,147	25.6	25.3	24.3	75.2	17.0	7.6	27.0	52.0	20.7	0.2
2022	9월(A)	61,593	26.3	25.4	24.2	75.9	16.7	7.1	29.7	51.7	18.3	0.3
	1~9월(B)	637,132	25.2	25.4	24.4	75.0	17.2	7.6	26.8	52.1	20.8	0.2
2023	'22.8월(C)	91,534	25.1	24.7	24.5	74.3	17.1	8.3	30.1	52.2	17.4	0.3
	9월(D)	109,316	25.0	25.0	24.5	74.4	17.5	7.8	30.3	51.9	17.5	0.3
	1~9월(E)	716,517	24.7	24.6	24.8	74.1	17.5	8.2	28.0	51.7	20.0	0.3
전월대비(D-C)		17,782	△0.1	0.3	0.0	0.1	0.4	△0.5	0.2	△0.3	0.1	0.0
전년동월대비(D-A)		47,723	△1.3	△0.4	0.3	△1.5	0.8	0.7	0.6	0.2	△0.8	0.0
전년누계대비(E-B)		79,385	△0.5	△0.8	0.4	△0.9	0.3	0.6	1.2	△0.4	△0.8	0.1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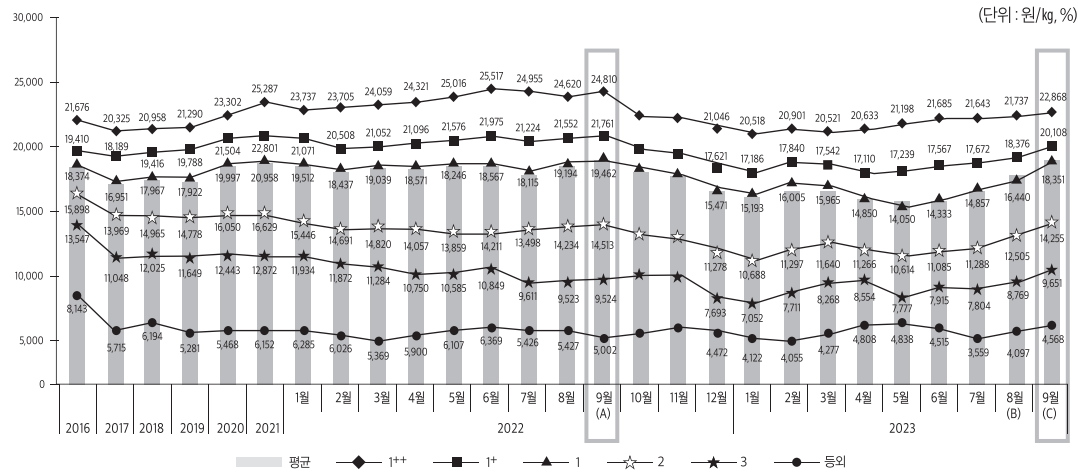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동향

◎ 2023년 9월 한우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 9월 1등급 기준 도매가격(18,351원/kg)은 전년 동월(19,462원/kg) 대비 5.7%(1,111원/kg) 하락,

전월(16,440원/kg) 대비 11.6%(1,911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8,656원/kg)은 전년 동월(20,053원/kg) 대비 7.0%(1,397원/kg) 하락, 전월(17,052원/kg) 대비 9.4%(1,604원/kg) 상승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그림 3]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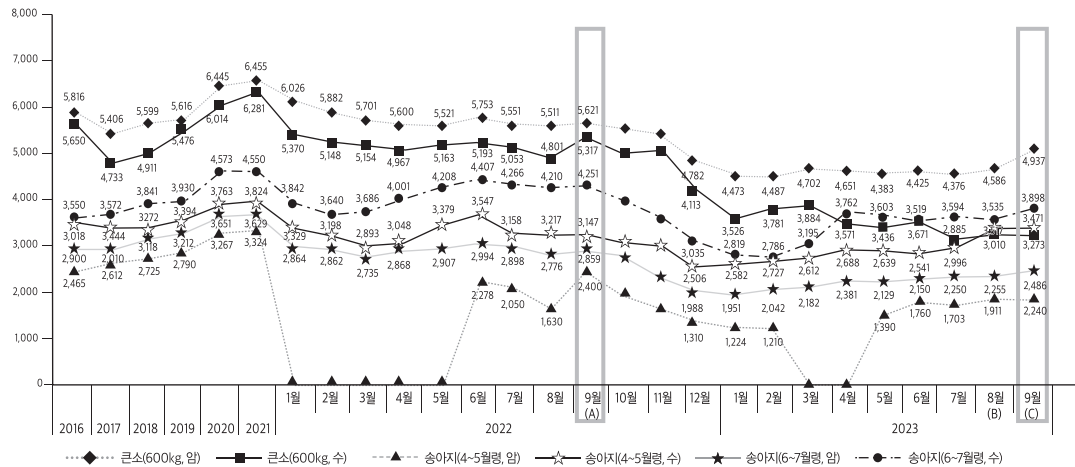
◎ 9월 한우 산지가격 큰 소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암소는 전월 대비 상승, 송아지(6~7개월령)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 9월 큰 소(600kg) 산지가격은 암소의 경우 4,937천원으로 전년 동월(5,621천원) 대비 12.2%(684천원) 하락, 전월(4,586천원) 대비 7.7%(351천원) 상승
 - 수소의 경우 3,471천원으로 전년 동월(5,317천원) 대비 34.7%(1,846천원) 하락, 전월(3,517천원) 대비 1.3%(46천원) 하락
- 9월 송아지(6~7개월령)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2,486천원으로 전년 동월 (2,859천원) 대비 13.0%(373천원) 하락, 전월(2,255천원) 대비 10.2%(231천원) 상승
 - 수송아지의 경우 3,898천원으로 전년 동월(4,251천원) 대비 8.3%(353천원) 하락, 전월 (3,535천원) 대비 10.3%(363천원) 상승

[표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단위: 원/kg, %)

구분	1**	1*	1	2	3	등외	평균
2017	20,325	18,189	16,951	13,969	11,048	5,715	16,719
2018	20,958	19,416	17,967	14,965	12,025	6,194	17,772
2019	21,290	19,788	17,922	14,778	11,649	5,281	17,965
2020	23,302	21,504	19,997	16,050	12,443	5,468	19,891
2021	25,287	22,801	20,958	16,629	12,872	6,152	21,155
2022	9월(A)	24,810	21,761	19,462	14,513	9,524	20,053
2023	8월(B)	21,737	18,376	16,440	12,505	8,769	17,052
	9월(C)	22,868	20,108	18,351	14,255	9,651	18,656
증감율	전년동월(C/A)	△7.8	△7.6	△5.7	△1.8	1.3	△8.7
	전월(C/B)	5.2	9.4	11.6	14.0	10.1	9.4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자료: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주: 2020년 송아지(4~5월령)의 경우 3월과 5월은 코로나로 인한 가축시장 임시폐쇄로 가격자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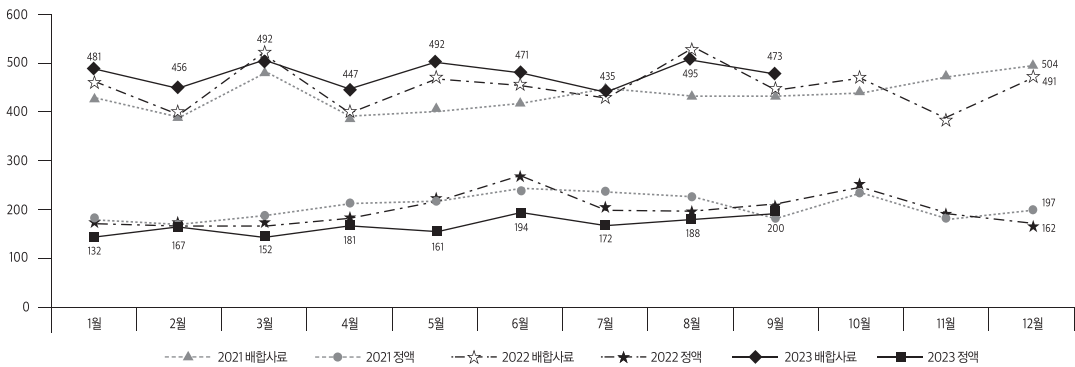
[그림 4] 한우 산지가격 추이(전국)

[표 5] 한우 산지가격 추이 (단위: 천원, %)

구분	큰소(600kg)		송아지(4~5월령)		송아지(6~7월령)	
	암	수	암	수	암	수
2016	5,816	5,650	2,465	3,485	2,900	3,550
2017	5,406	4,733	2,612	3,444	2,919	3,572
2018	5,599	4,911	2,725	3,272	3,118	3,841
2019	5,646	5,476	2,790	3,394	3,212	3,930
2020	6,114	5,446	3,060	3,711	3,435	4,295
2021	6,455	6,281	3,324	3,824	3,629	4,550
2022	1월	6,026	5,370	-	3,329	2,864
	2월	5,882	5,148	-	3,198	2,862
	3월	5,701	5,154	-	2,893	2,735
	4월	5,600	4,967	-	3,048	2,868
	5월	5,521	5,163	-	3,379	2,907
	6월	5,753	5,193	2,278	3,547	2,994
	7월	5,551	5,053	2,050	3,158	2,898
	8월	5,511	4,801	1,630	3,217	2,776
	9월(A)	5,621	5,317	2,400	3,147	2,859
	10월	5,538	4,944	2,001	3,045	2,686
	11월	5,391	5,016	1,553	3,018	2,329
	12월	4,782	4,113	1,310	2,506	1,988
2023	1월	4,473	3,526	1,224	2,582	1,951
	2월	4,487	3,781	1,210	2,727	2,042
	3월	4,702	3,884	-	2,612	2,182
	4월	4,651	3,762	-	2,688	2,381
	5월	4,383	3,603	1,390	2,639	2,129
	6월	4,425	3,671	1,760	2,541	2,150
	7월	4,376	2,996	1,703	2,885	2,250
	8월(B)	4,586	3,517	1,911	3,010	2,255
	9월(C)	4,937	3,471	2,240	3,273	2,486
증감율	전년동월(C/A)	△12.2	△34.7	△6.7	4.0	△13.0
	전월(C/B)	7.7	△1.3	17.2	8.7	10.2

자료: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4.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정액 판매 동향
- ◎ 2023년 9월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한우 정액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
 - 9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473천 톤(당해년도 누적 4,232천 톤)으로 전년 동기간 누적 생산량 (4,183천 톤) 대비 1.17% (49천 톤) 증가
 - 9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200천 str(당해년도 누적 1,547천 str)로 전년 동기간 누적 판매량 (1,723천 str) 대비 10.21% (176천 str) 감소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그림 5]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표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단위 : 천톤, 천st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배합 사료	2021	442	406	490	406	423	435	451	444	451	453	482	504	5,387
	2022	473	417	514	418	485	453	436	529	458	478	409	491	5,561
	2023	481	446	492	447	492	471	435	495	473				4,232
정액	2021	172	162	179	209	209	233	226	214	183	220	170	197	2,374
	2022	171	171	171	183	206	233	199	192	202	220	176	162	2,281
	2023	132	167	152	181	161	194	172	188	200				1,547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5. ○ 2023년 9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감소

- 9월 쇠고기 수입량은 3만 1,499톤으로 전년 동월 4만 4,062톤 대비 28.5% (12,563톤) 감소, 전월 3만 7,652톤 대비 16.3%(6,153톤) 감소
- 전월 대비 냉동 쇠고기 15.7%(4,416톤) 감소, 냉장 쇠고기 18.3%(1,737톤) 감소

[표 7] 쇠고기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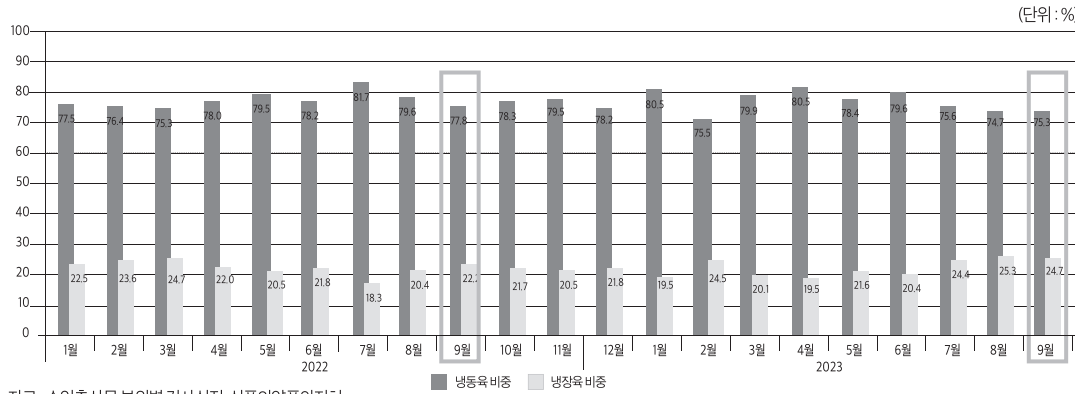
(단위:톤,%)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15	297,265	245,952	51,313	115,460	38,582	31,404	42,826	68,993	112,431	164,063	20,771
2016	361,531	301,219	60,312	133,197	35,049	45,295	50,001	97,989	153,181	177,530	30,820
2017	344,271	265,665	78,606	142,659	37,517	42,648	39,031	82,416	168,502	149,935	25,834
2018	415,685	326,531	89,154	151,933	53,737	54,270	55,595	100,150	219,769	167,454	28,462
2019	426,626	339,240	87,386	164,792	57,444	53,881	49,849	100,660	237,624	163,158	25,844
2020	419,469	321,646	97,823	161,018	54,616	54,937	44,522	104,376	228,686	158,293	32,490
2021	452,792	333,412	119,381	153,481	65,331	60,625	46,948	126,407	254,874	160,117	37,801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22	1월	39,218	30,375	8,843	12,121	7,403	5,285	3,964	10,445	15,987	17,969	5,262
	2월	34,349	26,232	8,117	13,150	6,485	4,737	2,640	7,337	22,977	8,291	3,081
	3월	39,926	30,050	9,876	14,508	8,339	4,291	3,412	9,376	23,943	11,821	4,162
	4월	36,355	28,367	7,988	14,449	7,439	4,073	2,940	7,454	21,141	9,854	5,360
	5월	44,669	35,532	9,137	16,877	9,480	4,641	3,490	10,181	24,545	13,732	6,392
	6월	37,607	29,390	8,217	15,550	6,572	3,715	3,192	8,578	20,800	11,886	4,921
	7월	43,249	35,349	7,900	16,485	7,127	4,039	3,724	11,874	23,725	14,837	4,687
	8월	42,067	33,486	8,581	14,041	6,418	4,681	4,186	12,741	21,558	16,452	4,057
	9월	44,062	34,293	9,769	15,137	5,904	5,168	4,172	13,681	23,894	16,036	4,132
	10월	36,159	28,305	7,854	13,245	5,218	4,209	2,975	10,512	19,297	14,391	2,471
	11월	36,726	29,203	7,523	14,530	6,356	4,323	3,339	8,178	22,093	11,302	3,331
	12월	42,367	33,141	9,226	15,533	7,474	5,079	3,118	11,163	25,504	15,513	1,350
	누계	476,754	373,723	103,031	175,626	84,215	54,241	41,152	121,520	265,464	162,084	49,206
2023	1월	35,649	28,695	6,955	11,685	5,608	5,619	3,197	9,540	17,022	14,187	4,440
	2월	35,118	26,500	8,618	13,171	5,511	5,129	2,806	8,501	21,270	10,317	3,531
	3월	43,632	34,874	8,758	15,822	6,523	5,944	3,958	11,385	23,952	15,077	4,603
	4월	41,615	33,514	8,101	13,263	6,438	5,909	4,073	11,932	20,291	17,999	3,325
	5월	44,373	34,783	9,590	13,788	5,896	7,086	4,815	12,788	23,587	16,984	3,802
	6월	39,076	31,120	7,956	11,771	4,719	5,193	4,695	12,698	19,504	15,863	3,709
	7월	36,507	27,601	8,906	12,098	3,690	4,848	4,697	11,174	19,314	15,402	1,791
	8월	37,652	28,137	9,515	12,563	3,705	4,806	5,576	11,002	19,155	16,723	1,774
	9월	31,499	23,721	7,778	11,196	3,931	2,978	4,113	9,281	15,598	13,647	2,254
	누계	345,121	268,945	76,177	115,357	46,021	47,512	37,930	98,301	179,693	136,199	29,229
증감률	전년동월	△28.5	△30.8	△20.4	△26.0	△33.4	△42.4	△1.4	△32.2	△34.7	△14.9	△45.5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축산물 검사실적 순기보고

- 9월 부위별 쇠고기 수입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앞다리 42.4%(2,190톤), 양지 33.4%(1,973톤), 기타 32.2%(4,400톤), 갈비 26.0%(3,941톤) 감소
- 9월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미국산이 18.6%(3,557톤), 호주산 18.4%(3,076톤) 감소



자료 : 수입축산물 부위별 검사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림 6] 수입쇠고기 냉동육과 냉장육 비중 변화 추이



우수한 송아지 생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농장주에게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농장주는 “무엇보다도 정액이 중요 하지!”와 “우수한 KPN을 구할 수가 없어!”라는 말을 듣게 된다.

과연 1등급 정액만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일부만 맞고 나머지는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한다는 의미는 시장에서 송아지 경매 가격을 높게 받거나 또는 육량과 육질 등급이 좋은 비육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고 올바른 사양 관리와 적절한 사육 환경에서 키워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 구성하는 요소들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축산과학원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많은 컨설턴트의 강의 자료에서 유전력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사양 관리는 30-40% 정도 차지하며, 나머지는 사육 환경에 좌우된다는 교육을 한 번쯤은 접해 보았을 것

이다. 그리고 유전력은 아비 소와 어미 소로부터 반반씩 오기 때문에 우수한 KPN이 중요하다라는 농장주의 답변은 25% 정도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렇기에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1등급 KPN을 구하기 어려우니, 나머지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그중 송아지의 생시 체중에 대해 설명하겠다.

첫 번째 방안은 생시 체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암소의 개량에 노력해야 한다. 암소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농장주가 개체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가계도를 그려 볼 것을 권장한다. 경남 합천에서 개량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던 한 농장주는 직접 기록장을 제작하고 가계도



암소 개량 통해 송아지 생시 체중 늘리길 권장 수치와 개체파악 가계도 병행...개량에 유리



를 작성함으로써 다른 농가 보다 높은 가격의 송아지와 임신우를 판매할 수 있었다. 숫자에만 의존한다면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치와 가계도를 병행하는 것이 개량을 위한 지름길일 것이다.

가계도를 작성하기 전 우리 농장에 남겨야 할 암소를 선별해야 한다. 선별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선별 기준이 없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개량이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후대성적과 유전력, 기질 외에도 비육된 암소의 등급 정보를 활용하거나 번식 성적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암소의 체형을 키우는 것이다. 초산의 경우 송아지의 생시 체중이 작기 때문에 생시 체중을 증가시키기 위해 많은 농장주가 임신우의 첫 종부월령을 16-17개월에 실시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그렇기에 임신우의 첫 종부월령을 늦게 가져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번식우의 체형이 커야 송아지도 크게 나올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번식우의 체형을 키우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다. 수정을 늦게 하지 않고 번식우 자체를 육성구간에서 크게 키

우면 된다. 강원도 정선에 3산 이후 비육한 암소의 도체중 평균이 450kg대에 1+ 이상 비율이 50%가 넘는 농장이 있었다. 개량의 효과도 있었겠지만 이 농장의 특별한 점은 암소도 거세와 마찬가지로 육성 구간이 체형이 형성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관리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체형이 큰 암소는 송아지의 생시 체중이 크기도 하지만, 부가적으로 암소 비육 시 등급이 우수하기도 하다.

세 번째 방안은 임신 기간의 적절한 사양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암소는 3.5kg~

4kg대의 배합사료를 급여한다. 농장의 번식우 체형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량이 높게 되면 과비로 인해 어미 뱃속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분만 전 3개월까지는 체형에 맞는 사료 급여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분만 전 3개월부터는 송아지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돌아 먹이기가 필요하다.

“타박 걸음으로 십리를 간다.”는 말이 있다.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뤄간다면 우리 농장의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암소나 번식우 체형 키우면 우량 송아지 기대
임신 기간 적절한 사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럼피스킨 Q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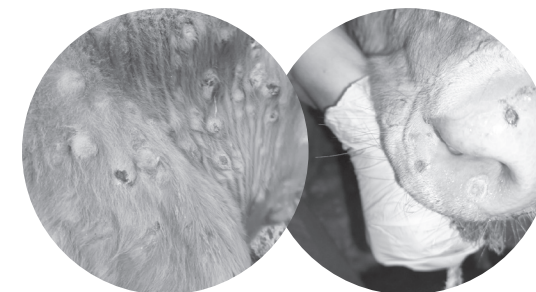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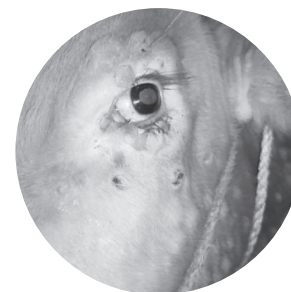
Q.1 럼피스킨과 구제역 비교

구분	럼피스킨	구제역
감수성 동물	소 및 물소	소·돼지·염소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 (우제류)
주요 증상	피부·점막·내부장기의 결절과 여임, 림프절 종대, 피부부종, 폐사 등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거품 섞인 침흘림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 가피, 궤양 형성 식욕 저하, 폐사 등
사람전염	전염안됨	전염안됨
병원체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전파원인	럼피스킨의 주요 전파 요인은 모기류, 흡혈 파리, 수컷 진드기 등 흡혈 곤충으로 인한 기계적 전파 감염된 동물에 의해 오염된 사료나 물 섭취 및 오염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전파도 가능 이 외에도 감염동물의 피부 병변, 콧물, 우유, 정액 등도 감염원	감염동물의 수포액이나 침, 유즙, 정액, 비말 공기 및 분뇨 등과 직접 접촉 전파 감염지역 내 사람, 차량 및 차량기사, 의복, 물, 사료, 장비, 기구, 쥐, 곤충 및 개·고양이 등에 의한 간접접촉 전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기(바람)를 통해서도 전파 가능(육지 60km, 바다 250km)
잠복기	4~14일(최대 28일)	2~8일(최대 14일)
폐사율	10% 이하	새끼돼지 폐사율 50% 정도 성우 폐사율 5% 미만

Q.2 럼피스킨과 감별 진단이 필요한 주요 질병

질병명	주요 증상
1. 허피스바이러스성 피부병 (Bovine Herpesvirus 2)	• 피부 표면에 얇은 피부 결절 • 단기간 경증의 증상을 보임
2. 구진성 구내염 (Papular stomatitis)	• 구강 점막에서만 병변 관찰
3. 가성우두 (Pseudocowpox)	• 유방과 유두에서만 병변 관찰
4. 사상충증 (Onchocerciasis)	• 복부 중앙에 피부병변
5. 버짐(백선증) (Ringworm)	• 피부 탈모, 가피, 결절 형성
6. 경피증 (Besnoitiosis)	• 탈모가 동반된 두껍고 주름진 피부병변
7. 모낭충증 (Demodicosis)	• 주로 기갑(withers), 목, 옆구리에서 피부병변이 관찰, 종종 탈모 증상 동반
8. 곤충 물림, 두드러기, 광과민성 피부병 (Insect bites, Urticaria, Photosensitisation)	• 주로 피부 표면에 병변 • 단기간 경증의 증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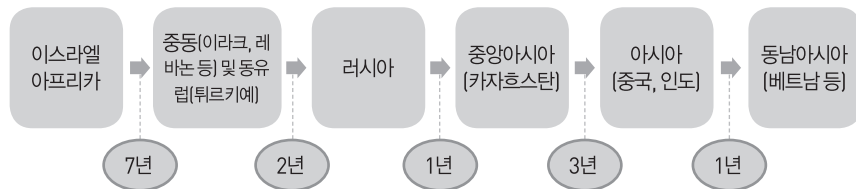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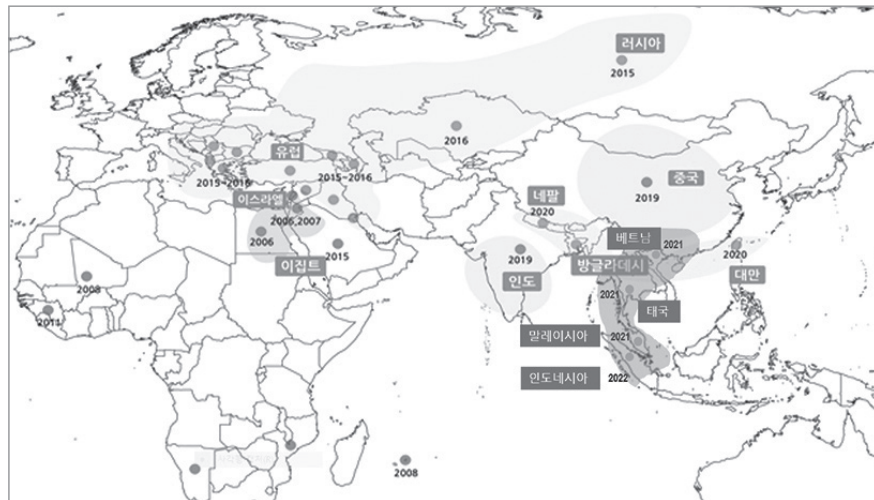
(자료출처 : FAO, LUMPY SKIN DISEASE, 2017)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검사(PCR) 필요



Q.3 해외 발생 현황은?

WOAH(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23년 아시아(이스라엘, 부탄, 인도네시아, 태국), 유럽(러시아), 아프리카(리비아)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

*('23년 발생건수, WOAH 기준) 아시아 44건(부탄 20, 인도네시아 15, 태국 5, 이스라엘 4), 유럽 4건(러시아 4), 아프리카 11건(리비아 11건)






'19년 이후 아시아 국가별 신규 발생 시기

	2019(3)	2020(7)	2021(5)	2022(3)	2023
국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팔• 대만• 부탄• 베트남• 홍콩• 미얀마• 스리랑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파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중국: 농업농촌부 홈페이지(전국 주요동물질병보고현황)를 통해 '23년 총 33두(7월 5, 8월 1, 9월 27) 발생 확인됨, 구체적 발생지역 정보는 없음

Q.4 현재 국내에 공급되는 럼피스킨 백신의 종류는?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2종) 및 튀르키예(1종)로부터 약독화 생백신을 수입해 공급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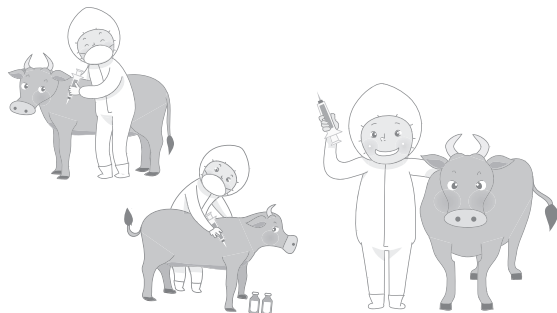
구분	내용		
제품명	 럼피백스 (Lumpyvax)	 럼피백 (LUMPYVAC)	 럼피스킨 백신(소) (LUMPY SKIN DISEASE VACCINE FOR CATTLE)
제조사 (제조국)	MSD Animal Health (남아프리카공화국)	VETAL Animal Health (튀르키예)	OBP (남아프리카공화국)
용법 용량	1ml/두, 피하주사 (희석액 5ml 혼합)	2ml/두, 피하주사 (희석액 3~5ml 혼합)	2ml/두, 피하주사 (희석액 5ml 혼합)
저장 방법	냉장 (2~8℃)	냉장 (2~8℃)	냉장 (4~8℃)
접종 주기	1) 최초접종 ○ 어미 소 미접종 - 상시 접종 가능 ○ 어미 소 접종 - 생후 6개월령 이후 2) 추가접종 - 1년마다 권장	1) 최초접종 ○ 어미 소 미접종 - 상시 접종 가능 ○ 어미 소 접종 - 생후 4~6개월령 이후 2) 추가접종 - 1년마다 권장	1) 최초접종 ○ 어미 소 미접종 - 상시 접종 가능 ○ 어미 소 접종 - 생후 6개월령 2) 추가접종 - 1년마다 권장
효능	접종 10일 후부터 면역형성, 3주 후부터 방어 가능	최소 12개월 면역 지속	접종 10일 후부터 면역형성, 3주 후부터 방어 가능

Q.5 피하접종과 근육접종 설명

	피하접종(SC)	근육접종(IM)
접종요령	소를 잘 보정한 다음 한손으로 목 쪽에 피부를 잡아당겨 피부와 근육사이에 바늘을 비스듬히 주입하여 주사	소를 잘 보정한 다음 목 등의 근육 부위를 확인하고 주사 바늘이 근육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각도(일반적으로 45도 이상)를 이루어 주사
		
접종대상 주요 질병	럼피스킨 등	구제역 등

Q.6 백신 효과는 얼마 기간 동안 지속되는지?

백신 효과 지속 기간은 1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백신 제조사에서도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1년마다 재접종 하도록 안내



Q.7 백신접종 시 부작용은?

럼피스킨 백신은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 후 발열, 유량 감소, 미세한 결절 등 경미한 접종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 접종 후 2~3주 이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참고> 해외사례 (2017 EFSA)

- 크로아티아(LSD 비발생국)에서 접종 시 보고된 사례를 보면 접종가축(0.09%)과 접종농장(0.19%)에서 미미한 접종반응* 확인
- * 발열, 유량 감소, 홍반, 접종부위 부종, 미세한 결절(혹) 등

Q.8 백신접종 후에도 감염될 수 있는지?

백신접종 후 면역력이 충분히 형성될 때까지 약 3주 가량 소요되므로 면역 형성 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감염 가능
항체가 형성되더라도 바이러스 노출량, 소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감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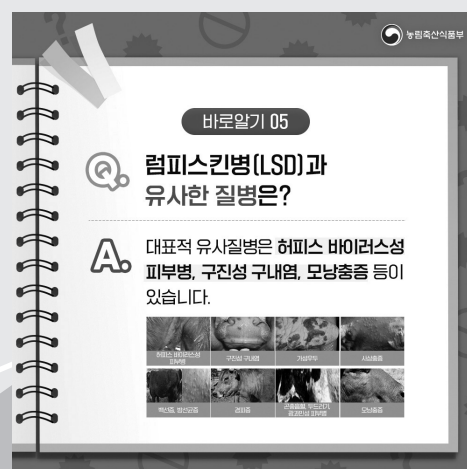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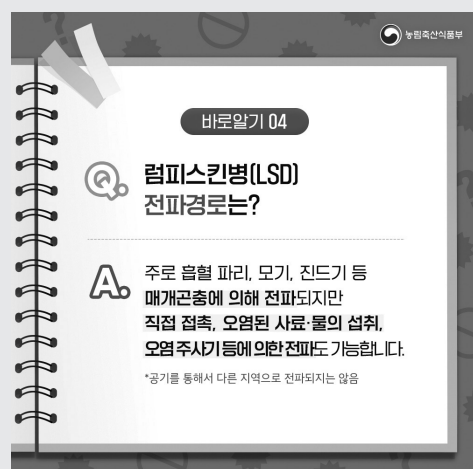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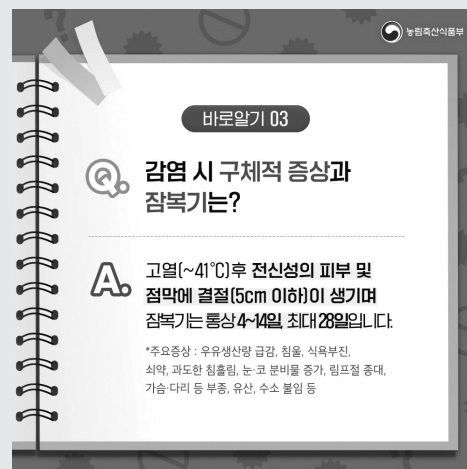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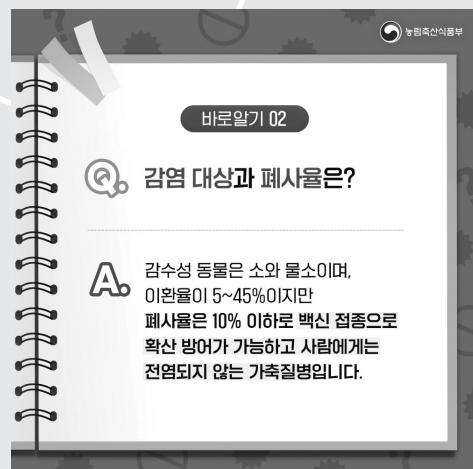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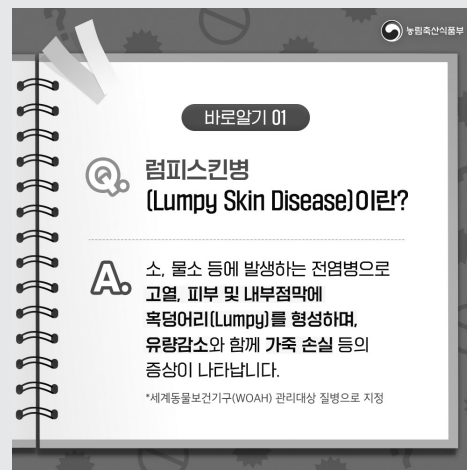
Q.9 이미 감염된 개체가 백신을 맞을 경우 감염을 늦추거나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이미 감염된 개체는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 지연 또는 억제 효과가 없음

Q.10 폐사율이 높지 않는데 1종 가축전염병인 이유?

폐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식육부진, 젖소의 우유 생산량 감소 등 소 사육농가 및 관련 산업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럼피스킨 바로알기 카드뉴스



전문가 칼럼



김대중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 박사

기회비용을 고려한 한우정액 당첨 전략

한우 생산을 위해서는 사양, 번식, 개량, 질병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중 생산비는 한우농가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가와 인공수정사가 일반적으로 한우 정액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한우정액 인터넷 추첨제도'를 이용하며 당첨된 정액을 도별 지역담당자를 통해 공급받는다. 추첨을 통한 당첨 이외에도 당첨 없이 구입이 가능한 '현장 공급용 정액'을 정액공급 현장에서 구입하거나 한우암소검정사업, 한우육종농가사업 등 국가정책사업을 통해서도 공급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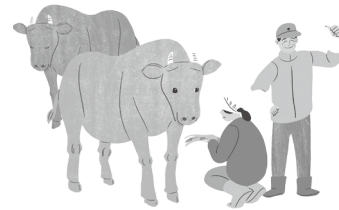
선호정액의 공급 부족

근친교배를 방지하고 유효한 집단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씨수소당 생애정액 생산량을 제한한다. 개체당 허락된 생애정액 생산량은 10만개인데, 이것을 다 채운 보증씨수소는 도태한다. 대개 4~5년 정도가 되면 씨수소의 도태 시기가 도래하는데, 도태는 근친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고 유전적 다양성 보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좋은 정액을 시장에서 원하는 수량만큼 공급해 주지 못하



전문가
칼럼

한우정액 선호도에 따라 당첨률 큰 차이
현실적인 당첨확률-선발지수 동시에 고려
기회비용 감안...유리한 당첨전략 수립을



는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 이에 2019년부터 선호도가 높은 일부 씨수소에 대해 생애정액 생산량을 12만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지만, 특정 개체의 선호 현상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터넷 추첨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현행 인터넷 추첨제도 하에서는 정액을 신청한 농가의 당첨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농가마다 한우정액의 연간 최대 당첨가능 횟수가 제한된다. 최대 당첨가능 횟수는 농가가 소유한 가임암소의 수에 따라 1~10회 사이로 결정된다. 농가에서 당첨 '가능' 횟수를 당첨 '보장' 횟수로 착각하여 사업소에 문의전화를 주시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고선호 정액만을 위주로 신청하여 인터넷 정액에 당첨되지 않아 주로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한우농가 관련 한우인터넷 추첨제도 기준표

(단위: 두, str)

구분	1그룹	후보	2그룹	3그룹	신규	합산 최대 당첨가능횟수	그룹당 당첨제한 횟수	
							1그룹·후보	2·3그룹
한우농장주 및 영농조합법인 (가임암소)	전업비육·폐업	-	-	-	-	-	당첨제한	
	10두 이하	5	5	10	10	연 1회	그룹구분 없음	
	11~20	5	5	10	10	연 3회	1회	2회
	21~30	5	5	10	10	연 4회	2회	2회
	31~40	5	5	10	10	연 5회	2회	3회
	41~50	10	10	10	10	연 5회	3회	2회
	51~60	10	10	10	10	연 6회	3회	3회
	61~100	10	10	10	20	연 8회	4회	4회
	101~200	15	15	20	20	연 9회	5회	4회
	201두 이상	20	20	30	30	연 10회	6회	4회

2022년 정액 신청 건수 및 당첨률 상위 10위 정액

(단위: 개수, %)

신청량 순위					당첨률 순위				
순위	정액번호	신청 개수	당첨 개수	당첨률	순위	정액번호	신청 개수	당첨 개수	당첨률
1	KPN-1416	1,219,275	25,160	2.06	1	KPN-1477	216,020	3,000	1.39
2	KPN-1402	632,900	16,410	2.59	2	KPN-1604	261,255	4,720	1.81
3	KPN-1274	571,890	11,570	2.02	3	KPN-1581	276,670	5,160	1.87
4	KPN-1459	441,215	45,375	10.28	4	KPN-1274	571,890	11,570	2.02
5	KPN-1400	377,960	28,910	7.65	5	KPN-1489	170,890	3,500	2.05
6	KPN-1420	335,725	28,700	8.55	6	KPN-1416	1,219,275	25,160	2.06
7	KPN-1410	303,405	32,420	10.69	7	KPN-1557	285,960	6,885	2.41
8	KPN-1375	293,750	41,390	14.09	8	KPN-1588	89,975	2,310	2.57
9	KPN-1557	285,960	6,885	2.41	9	KPN-1402	632,900	16,410	2.59
10	KPN-1581	276,670	5,160	1.87	10	KPN-1469	112,800	3,460	3.07

농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정액을 분석해 보면, 특정 정액에 대한 수요 집중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선발지수가 높은 정액은 많은 농가가 신청하여 당첨률이 2.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도 있다. 대표적인 KPN-1416, 1402와 같은 씨수소의 정액이 해당되는데 이러한 개체들의 정액은 당첨되기가 매우 어려워 시장에서는 웃돈을 주고 음성적인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가축재량원에서는 한우정액을 인터넷 추첨으로 공정하게 추첨하여 공급하고 있고, 추첨과정은 제도상 제시된 당첨가능횟수에 따라 공평하게 정액이 배분토록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 추첨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원이 아닌 외부업체에서 독립적으로 실시하며, 추첨 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www.limc.co.kr)등을 통해 매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기회비용을 고려한 한우정액 당첨 전략

한우정액의 선호도에 따라 당첨률(경쟁률)은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선발지수와 당첨률의 상관관계를 잘 따져 기회비용을 고려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당첨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회비용이란, 경제학에서의 개념으로 포기한 대안에 대한 비용을 뜻한다.

현행 인터넷 추첨제도에서는 선택한 정액의 가치와 포기한 정액의 가치를 비교해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요컨대 선발지수가 높지만 당첨률이 낮은 정액을 계속 신청해 요행을 노릴 것인지, 선발지수는 평균적이지만 당첨이 잘 되는 정액을 신청해 좀 더 확실한 정액의 확보를 노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
칼럼



암소 개량-사양관리 등 관리수준 따라
고선호 정액 가치 농장마다 다를수 있어
기대값 높은 개체 선택이 합리적일 수도

또한 대부분의 농가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KPN정액의 가치는 농장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수정으로 태어나는 송아지는 씨수소와 암소의 유전자가 반반씩 발현되기 때문에 암소의 개량정도가 큰 영향을 끼친다. 이외에도 사양관리로 통칭되는 여러 가지 관리요소들 또한 변수이므로, 씨수소 선발지수만을 가지고 좋은 송아지를 얻으려고 하지는 말아야 한다. 농장의 관리수준에 따라 적당한 수준의 선발지수의 씨수소로도 좋은 송아지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당첨률을 감안한 씨수소 선발지수 순위 (2022년 기준)

(단위: 개수, %)

구분	당첨개수	낙첨개수	신청개수	당첨확률 (a)	보증씨수소 선발지수 (b)	기대값 (a×b)	당첨률감안 선발지수 순위
KPN1348	1,990	1,630	3,620	55.0%	8.03	4.42	1
KPN1283	1,210	3,080	4,290	28.2%	15.33	4.32	2
KPN1470	950	1,160	2,110	45.0%	9.50	4.28	3
KPN1292	4,820	6,340	11,160	43.2%	9.16	3.96	4
KPN1567	2,950	12,075	15,025	19.6%	19.83	3.89	5
:	:	:	:	:	:	:	:
KPN1416	25,160	1,194,115	1,219,275	2.1%	28.79	0.59	102
:	:	:	:	:	:	:	:
KPN1320	3,410	5,070	8,480	40.2%	-0.65	-0.26	127

현재 시판되는 후보·보증씨수소(KPN)는 모두 품질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검증된 것들이다. 선발지수가 가장 낮은 개체라 할지라도 충분히 육질과 육량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우수한 제품들 인 것이다.

보증씨수소의 가치를 판매가격이 아닌 KPN선발지수로 보았을 때, 인터넷추첨제도의 당첨확률도 고려하여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한우농가는 최대



10회의 당첨 기회를 가지며, 여기서는 그룹과는 무관한, 1회당의 기대값을 계산해 보겠다. 예를 들어 KPN1416의 경우, 2022년 당첨확률 약 2.1%와 KPN지수를 곱하여 기댓값(당첨률 감안 선발지수)을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KPN에 대한 기회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KPN1416의 기댓값(당첨률 감안 선발지수)은 0.59이나, KPN1348, 1283, 1470, 1292, 1567의 기댓값(당첨률 감안 선발지수)은 약 4에 이르러 훨씬 상회하는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추첨 제도를 활용할 때, 당첨확률에 대한 '기대값'은 종종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현실적인 당첨확률과 선발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낙첨확률까지를 감안한다면 단순히 선발지수가 높은 씨수소만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며, 앞서 제시한 기대값이 높은 개체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다.

결론

농가에서 원하는 정액을 원하는 대로 생산하여 공급한다면 개별 농가의 실익은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분별한 공급은 한우집단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어렵게 이루어 낸 품종보전과 개량의 성과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본 화우의 예를 들면 국가단위로 다양성을 보장하는 개량체계가 아닌, 현단위, 민간단위 개량체계인데, 무계획적이고 극단적인 개량으로 인해 현재 부작용을 겪고 있다. 통상 3% 이내로 관리되어야 하는 근친계수가 화우는, 최근 9.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여 각종 유전병, 수태율 저하 등 생산성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있다.(23년도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 참조)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의 한우정액 공급체계는 씨수소의 정액생산 한계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했고, 결과적으로 한우의 품종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유전적 개량도 동시에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개별 농가에서는 이제부터 고선호 정액만을 신청하기보다, 기대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액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하다. 씨수소 못지않게 암소축군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함을 인지하며 암소 개량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수의칼럼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장
수의학 박사

겨울철 한우 장독혈증 발생과 대책



국내외 소, 양 등 반추동물에서 간헐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장독혈증(*C. perfringens*)은 과식병 또는 펄프상 신장병이라고도 하며, 특히 소는 생후 6개월 이내인 송아지에게 흔히 발병된다. 이 균은 토양이나 동물의 장관 속에 항상 적은 수로 존재하며 고단백질 사료의 과식 및 분쇄된 사료와 갑작스러운 사료 변경은 장 연동운동을 감소시키고, 면역저하, 혐기상태가 되기 쉽다. 이 균의 증식으로 생긴 독소의 흡수나 겨울철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기인한 소화기능 저하로 세균총이 변화하면서 발병하게 된다. 증상은 체온이 다소 오르고, 설사, 경련, 보양창랑, 선회운동 등의 신경증상이 있으며, 갑작스런 발병으로

급사하게 된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에 의해 발병되며, 동물의 장관 내에서 증식해 빠른 속도로 생성된 독소에 의해서 과사성, 출혈성 병변을 특징으로 한다. 소, 면양, 산양, 돼지 등의 급성, 치명적 질병인 장독혈증은 장관에 상재하면서 과식 등에 의한 소화장애의 원인으로 본 균에 대한 저항성이 약화될 때 다른 혐기성 균과 연루하여 장내에 이상 증식돼 송아지에 장독혈증을 유발시킨다. 이 균은 여러 형이 있으나, 송아지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타입은 A형이며, 이 밖에도 B, C, D형도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우 농가들이 농후사료 과다 급여 등의 이유로 발생되기 때문에 한우 사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평소에 미네랄과 비타민 제제 등을 급여해 면역력을 충분히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 원인체

장독혈증균이 원인균이며, 균종에 따라 12종의 독소를 생성하며 독소의 중화시험과 독신 생성 양상에 따라 A, B, C, D, E 및 F형 등으로 구분하며, 돼지의 경우는 C형이, 어린 송아지는 B 및 E형, 양은 A, B 및 D형, 사람은 A 및 C형이 병원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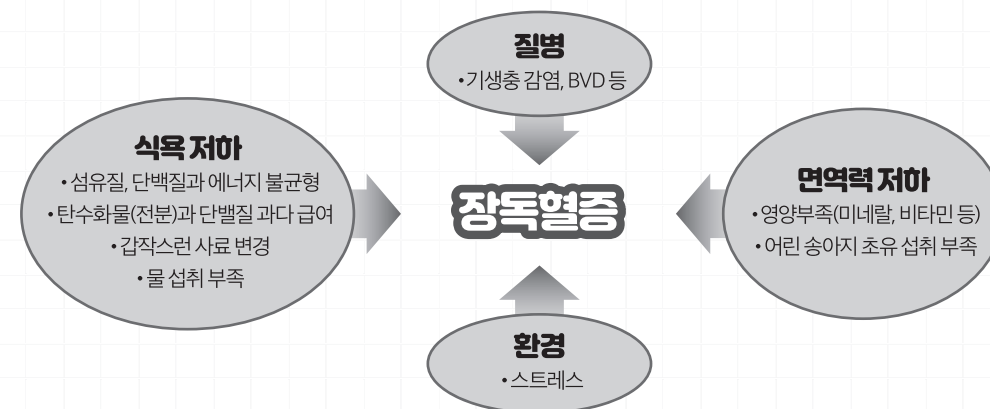
[표 1]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독소 형태와 병리기전과의 관계

독소 유형	독소	감수성 동물	병명
A(α)	알파독신	소, 양, 가금, 자돈	장독혈증 과사성 장염
B(α , β , ϵ)	알파, 베타, 엡시론독신	송아지, 망아지 성양 자양	출혈성 장염 출혈성 장독혈증 세균성 적리
C(α , β)	알파, 베타독신	송아지, 자돈, 자양, 망아지 성양	과사성 또는 출혈성 장독혈증 급성 장독혈증(갑작스런)
D(α , ϵ)	알파, 엡시론독신	송아지, 양 성우 양, 가금	장독혈증 정독혈증 과사성장염

[표 2]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독소 형태에 따른 증상과 예후

독소 유형	병리 기전	증상	예후(폐사)
A(α)	송아지의 장 모세혈관을 손상	출혈성 장염, 심한 수양성 설사, 쇠약, 빈혈, 황달, 혈액소뇨증 등	12시간 이내 폐사
B(α , β , ϵ)	-	출혈성 장염, 소장의 궤양, 호흡곤란에 의한 고통 등	수시간에 폐사
C(α , β)	-	생후 1주일령 이내의 송아지에 과사성 및 출혈성 장염	
D(α , ϵ)	장관에 손상	혈관주위의 수종, 출혈성 장염, 심내막 점상출혈, 승모판 주위 심내막 하의 출혈 등	

2 발병 원인





3 전염경로

감염경로는 보균 소나 송아지의 농장 간 전파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균은 분변을 통해 배출, 축사환경이나 토양 및 오염된 사료를 통한 경구감염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균의 특징이 토양 중에 아포로 존재하는 세균으로 국내 농장에 지역적 및 산발적으로 발생되며 주로 어린 가축에서 발생되기 쉽다.

4 국내 발생 현황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양에서 많이 발생하고 소는 생후 6개월 이내 송아지에서 흔히 발생한다. 고단백질 사료를 과다 섭취하면 갑자기 발생하며, 사육형태에 따라서 현재는 사료에 항생물질을 첨가함으로써 발생을 줄일 수 있으나, 야외에서 방목하는 가축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집단발생이 아닌 산발성인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발생된 장독혈증의 대부분은 A형으로 이(1977)가 보고하였으며, Vance(1967)는 정상적인 소에 있어서 *C. perfringens*의 보균율은 50~70%, 김 등(1999)은 도축우 소장에서 50.5%가 분리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김 등(2005)은 동물원의 사자에서 신 등(1999)은 바다사자, 이 등(2002)은 꽃사슴에서도 *C. perfringens*의 감염증례를 보고하였으며 조 등(1990)은 *C. perfringens*에 의한 송아지의 장독혈증에 관하여 보고했다. 특히 장독혈증은 1892년 보고된 이래, 원인체인 *Clostridium perfringens*는 가축(소, 양, 말, 돼지, 사슴 등)의 장관에 상재하면서 과식 등에 의한 소화장애의 원인으로 균에 대한 저항성이 약화될 때 다른 혐기성 균과 연루하여 장내에 이상 증식돼 송아지의 7~28일령에 가장 감수성이 높아서 장독혈증을 유발시킨다. 국내 강원, 충남, 경기 3개 지역 15개의 목장에서 1,700두 송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중 300두에서 설사병이 발생되어 17.6%의 발생율을 나타냈는데, *Clostridium perfringens*의 분리율은 31.7%로 보고되었으며(이 등, 1995), 한우 송아지 분변에서 37.5%의 검출율과 5%의 폐사율을 나타냈다(전 등, 2007).

5 증상

심급성형인 경우 갑자기 발병하여 급사, 특히 증상없이 갑작스런 폐사와 약간의 체온상승, 뇌 증상(보양창랑, 경련, 선회운동 등)을, 급성형은 식욕부진 및 구토, 설사, 쇠약, 뇨중 당의 증가(2~6%), 고창증세, 복통, 출혈성 설사, 사지마비, 호흡축박, 경련발작을, 만성형은 1~2주 동안의 간헐성, 지속성 설사를 일으킨다. A형은 사람에서 식중독과 새끼 양에서의 황달성 장독혈증을, B형은 신생송아지의 장독혈증과 자양(새끼양) 적리를, C형은 돼지, 양 및 송아지 등 대부분의 동물에서 출혈성 장독혈증과 어미양에서 문제가 되며, type D는 양의 펄프상신장병(pulpy kidney disease)를 일으킨다.

6 진단

이 병의 진단은 사료 특히 농후사료의 과식 및 갑작스러운 폐사 발생 등 임상증상과 병리소견 및 세균학적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각 장부위에서의 균분리와 장내용 중의 독소 증명을 하며, 이 경우, C와 D형 균이 분리동정되면 즉시 이 균에 의한 과사성장염이라 진단해도 착오가 없으나, A형균일 경우에는 정상세균총으로서 A형균과의 감별이 필요하므로 독소산생성의 강함을 확인할 것 등 진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7 치료

급성으로 짧은 시간에 폐사하므로 발병 후에는 항생제 치료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조기에 페니실린계 및 마클로라이드계 등의 항생제와 항독소의 병용이 추천되며, 치료약제로는 세파로틴, 페니실린 및 크로람페니콜이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분리균에 대한 약제검사를 실시하여 선발 투약하거나 예방접종이 요구된다.

8 예방

예방대책으로는 사료의 급격한 변경을 피하고 유사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사료 중 농후사료의 양을 줄여야 한다, 송아지 비육 시 농후사료의 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므로 항생물질을 포함한 사료를 이용해 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예방으로는 톡소이드백신 또는 사균백신의 예방접종이 권장되며, 항독소를 예방적으로 경구 투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쌀쌀한 가을철과 추운 겨울철을 맞이하여 한우 송아지와 성우에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장독혈증에 대한 이해와 농후사료 과다 급여의 위험에 대해 설명했으니 한우 농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갓 태어난 송아지의 경우 초유의 조기 및 충분한 급여와 아울러 미네랄, 비타민 제제 등을 충분히 급여해 면역력을 증강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DRAGON EYES

청룡을 타고 비상하는 2024를 기원하며!

출처 : 교보문고, 네이버도서 출판사 서평

TREND

모든 일은 서서히 준비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챗GPT가 그랬다. 인공지능 기술과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왔지만, 챗GPT만큼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없었다.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자연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가장 인기 있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서 말하는 ‘영어’는 한국어도 될 수 있고, 일본어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의 말과 글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4 표지 이미지.
(사진제공 : 미래의창)

모든 학자들이, 모든 책들이 ‘AI’와 ‘인공지능’, ‘챗GPT’를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4’는 인간의 역할 혹은 역량에 주목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즉, AI는 자신이 내놓은 결과물을 평가할 수 없다. 그것에 점수를 매기고 그 결과물을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몫이다. 미드저니가 아무리 환상적인 그림을 그릴지라도, 그 마지막 터치는 인간에게 남겨져 있다.

바로 ‘화룡점정’이다. 오롯이 인간만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배속 사회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여백은 무엇인가? 올해의 <트렌드 코리아>는 유독 천천히 읽기를 권한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쓴 ‘트렌드 코리아 2024’는 내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로 ‘분초사회’ ‘호모 프롬프트’ ‘육각형인간’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도파밍’ ‘요즘남편 없던아빠’ ‘스핀오프 프로젝트’ ‘디토소비’ ‘리퀴드폴리탄’ ‘돌봄경제’를 제시했다.

2024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

Don't Waste a Single Second: Time-Efficient Society 분초사회

1분 1초가 아까운 세상이다. 시간이 돈만큼 혹은 돈보다 중요한 자원으로 변모하면서 ‘시간의 가성비’가 중요해졌다. 단지 바빠서가 아니다.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이행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볼 것, 할 것, 즐길 것이 너무 많아졌다. 초 단위로 움직이는 현대 플랫폼 경제에서 시간의 밀도가 높아지며, 우리는 가속의 시대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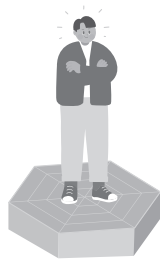


Rise of ‘Homo Promptus’ 호모 프롬프트



프롬프트는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 인간이 던지는 질문을 뜻한다. “AI는 프롬프트만큼 똑똑하다.”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키워드가 ‘호모’, 즉 인간으로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I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화룡점정’의 역량은 사색과 해석력을 겸비한 인간만의 것이다.

A spiring to Be a Hexagonal Human 육각형인간



완벽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등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육각형인간’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강박적인 완벽함의 반향으로 작용한다. 어차피 달을 수 없는 목표라면, 포기를 즐기는 놀이이자 타인을 줄 세우기 위한 잣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육각형인간 트렌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흔들리는 사회를 살아야 하는 젊은이들의 활력이자 절망이면서 하나의 놀이다.

G etting the Price Right: Variable Pricing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오늘날 ‘일물일가’의 법칙은 사라졌다. 소비자의 지불 의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실시간으로 모든 변수를 측정해내는 AI의 발달은 시간, 장소, 유통 채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일물N가’의 세상을 열었다. 소비자도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 이제 ‘최저가’가 아니라 ‘최적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O n Dopamine Farming 도파밍



도파민 도는 일 뭐 없나? 재미는 늘 인간의 화두였지만 요즘만큼 재미를 좇는 일이 일상이 된 적은 없었다. 게이머가 ‘파밍’하며 아이템을 모으듯, 사람들은 재미를 모은다. 엉뚱하고 기발하고 지극히 무의미한 일들이 주목을 끌고 ‘역대급 도파민’이 매번 기록을 경신한다.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가 범람하는 오늘날 도파밍은 피할 수 없는 추세다.

N ot Like Old Daddies, Millennial Hubbies 요즘남편 없던아빠

결혼이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이 된 오늘날, 결혼 후 남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전에 없이 달라졌다. 가사 노동과 육아, 가족 관계의 균형점이 이동하고 있다. 권위적 가정에서 평등한 동반자로 역할이 바뀌어가는 요즘남편,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6시 신데렐라’를 자처하는 없던 아빠들이 가정과 기업, 나아가 소비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E xpanding Your Horizons: Spin-off Projects 스펀오프 프로젝트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쓰이던 스펀오프가 이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비교적 저예산과 유동적인 전략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해보는 스펀오프는 기업 입장에서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고, 또 성공할 경우 예상 밖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들도 커리어 개발을 위해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변화의 시대, 스펀오프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Y ou Choose, I'll Follow: Ditto Consumption 디토소비



“나도”라는 의미의 ‘Ditto’가 소비 현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오롯이 반영하는 사람, 콘텐츠, 유통 채널의 선택을 따라 하는 디토소비는 구매 의사결정에 따르는 복잡한 과정과 시간을 건너뛰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FOBO, 즉 실패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손쉬운 방법, 디토소비가 뜬다.

E lastiCity. Liquidpolitan 리퀴드폴리탄

인구는 감소하고 광역 교통은 발달하는 현대사회에서 유목적 라이프스타일을 구가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지역은 이제 하나의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이동하고 흐르는 유연한 모습을 보인다. 정주인구보다 관계인구에 방점을 찍는 유연도시 리퀴드폴리탄이 주목받는다. 불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이 시대에 리퀴드폴리탄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S upporting One Another: ‘Care-based Economy’ 돌봄경제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초개인화하는 나노사회, 1분 1초가 아쉬운 분초사회에서, 돌봄의 시스템화가 중요해졌다. 돌봄은 이제 단지 연민이 아닌 경제의 문제다. 나 이와 건강 상태에 따른 사회적 약자들만이 그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엄마도 엄마가 필요한 세상이다. 돌봄경제는 바로 나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조직과 사회의 경쟁력이다.



감기와 독감, 코로나 유행은 피할 수 있을까?

가장 흔한 급성 질환 감기, 감염자 침방울로 전파
독감≠독한 감기 '전혀 다른 질환' 겨울-봄철 유행
코로나19 바이러스, 독감에 비해 긴 잠복기 특징



요즘같이 일교차가 크고 변덕스러운 날씨로 감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증상이 비슷한 일반 감기, 독감, 코로나 중 어느 질환에 해당하는지 몰라 헷갈린다는 사람들이 많다. 감기와 독감, 코로나는 증상이 비슷하지만 모두 다른 질환이다. 이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출처: 시빅뉴스, 질병관리청

감기는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 걸리는 호흡 계통의 질환이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급성 질환 중 하나이다.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200여 개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며 코나 목을 통해 감염을 일으킨다.

감기 '만병의 근원'...중이염·폐렴 등 합병증 유발

감염 경로는 바이러스를 소유하고 있는 환자의 코와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통해 감염된다. 이러한 분비물이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 외부로 나오면서 공기 중으로 전파되면 건강한 사람의 호흡기관으로 들어와 바이러스를 전염시킨다. 감기의 증상으로는 콧물, 코막힘, 기침과 근육통 등이 있다. 보통 감기는 증상이 서서히 시작되며 고열 증상은 드물게 나타난다.

독감은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흔히 '독한 감기'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독감과 독한 감기는 전혀 다른 질환이다. 독감은 감기에 비해 고열과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기침, 피로감 등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다양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현될 수도 있으며 전형적으로 고열과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는 때도 있다. 독감은 심한 경



우 합병증(2가지 이상의 질환이 겹쳐 일어나는 것)까지 유발할 수 있다. 더불어 사계절 내내 발생할 수 있는 감기와 달리 독감은 주로 겨울철이나 봄철에 유행한다.

노인·면역력 떨어지면 위험한 계절질환 ‘독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매년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공시한다. 이에 따라 매년 다른 인플루엔자 백신이 개발된다. 모든 성인은 매년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권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이 질환은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코, 입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잠복기는 2-14일을 거치며,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이다. 그러나 무증상 감염 사례 빈도도 높게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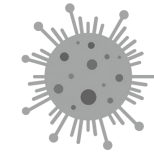
독감·코로나19,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독감과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이다. 두 감염병은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다만 인플루엔자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두통, 근육통을 동반한다면 코로나19는 감염이 일어난 후 약 닷새(5일)가 지난 뒤 후각, 미각의 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감기와 독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을 공개했다. 독감과 코로나19는 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독감 바이러스의 경우 계속해서 변이되고,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제약회사에서 매년 새롭게 제조하는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예방 관리 수칙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기, 기침 예절(마스크 쓰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지키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예방 관리 수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알림·자료 ‘이달의 건강 소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출후 손발 씻고 양치질...개인위생 ‘최선의 예방’
충분한 수면·규칙적인 운동으로 ‘저항력’ 높여야

감기 vs 독감 vs 코로나 차이점

	감기	독감	코로나19
분류	소아청소년 질환, 감염성 질환, 호흡기 질환	호흡기 증후군	
원인	200종류 이상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A, B, C형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주요증상	38도 이하 미열, 콧물, 인후염, 재채기 등	38도 이상 고열, 기침, 인후통, 두통 등	38도 이상 고열, 마른기침, 인후통, 두통, 숨이차는 증상 등
감염위치	상부 호흡기관 : 코, 입, 목		하부 호흡기관 : 기관, 폐, 세기관
잠복기	3일 이내	5일 이내	14일 이내
증상순서	콧물에서 기침 등으로 진척	동시다발적으로 증상이 나타남	초기 증상 없이 한 번에 발현
증상순서	재채기 → 콧물 → 기침 → 발열	기침, 근육통 → 두통 → 인후통 → 발열 → 설사 → 메스꺼움, 구토	발열 → 기침 → 인후통, 근육통 → 메스꺼움, 구토 → 설사
치료	대증치료	항바이러스제	대증치료
완치기간	일주일	일주일 ~ 수주일	국내 평균 20.7일
특이증상	-	-	미각과 후각 상실 무증상 감염자도 발생



전국한우협회 대한한우사료

- 한우 사료 품질과 가격의 표준점 제시
- 농가 주도 생산·원가공개·매달 가격 연동 시행

대한한우 사료의 원료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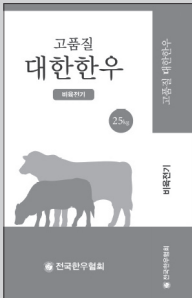
옥수수, 루핀후레이크, 대두박, 옥배아박, 채종박, 야자박, 팜박, 소맥피, 단백피, 비타민+미네랄혼합제, 황토, 미생물제, 당밀향+감미제, 번식개선제

대한한우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육 구분		어린송아지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비고
급여사료명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생후 월령		2~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출하월령 28개월 이상		
체중 (kg)		150		200	220	240	260	290	320	350	38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50	670	690	710	730	750	출하체중 750kg 이상		
일당증체량(kg)		0.8		0.8 - 1.0										1.0 - 1.2								0.6 - 0.8						0.84 kg
조사료	건초	2.0		자유채식										2.0	2.0	1.0												
	볏짚											1.0	1.0	1.0	2.0	2.0	1.5	1.5	1.5	1.0	1.0	1.0	1.0	1.0	1.0			
배합사료 급여량				3.0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	9.0	9.0	8.5	8.0			

대한한우 번식우 사양 프로그램

사육구분		번식우육성(반추위, 소화기관 완성기)							임신우												포유우	
월령 (개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경산우								포유중	
체중 (kg)		130 ~ 150	150 ~ 170	170 ~ 190	190 ~ 210	210 ~ 230	230 ~ 250	250 ~ 265	270 ~ 285	290 ~ 305	310 ~ 325	330 ~ 345	350 ~ 365	370 ~ 385	390 ~ 405	410 ~ 425	430 ~ 445	450 ~ 465	470 ~ 485	490 ~ 505	510 ~ 515	520 ~ 535
일당증체량 (kg)		0.6 ~ 0.8							0.4 ~ 0.6												0.6	
1일사료 급여량 (kg)	구분	번식용 중송아지							임신우												임신우	
	배합	2 ~ 3 kg							3 ~ 4 kg												4 kg	
	섭취량	배합							배합												배합	
	조사료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증감 요인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 10%정도 증가시켜 줄 것 임신 7개월부터 10% 증가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대한한우 어린송아지				대한한우 번식우				대한한우 육성기				대한한우 비육전기				대한한우 비육후기			
적용범위 생후2개월~6개월				적용범위 5개월~임신우				적용범위 생후7개월~14개월				적용범위 생후15개월~22개월				적용범위 생후 23개월~28개월			
•미아리산과 탄닌 함유에 의한 고창증과 설사 예방 •천연물질을 의한 항병력 강화 •반추미생물과 효모제 강화 •식이섬유와 비타민/미네랄 강화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 •대용유함유에 의한 빠른 입몰이기				•발정과 수태를 최적으로 위한 충분한 영양소 공급 •번식전용 비타민/미네랄 설계 •황토급여에 의한 미네랄 보충 •성정을위한충분한단백질공급				•성장을위한충분한단백질공급 •골격과 내장의 발달을 촉진 •적정에너지 공급 •섬유소 공급에 의한 반추위와 소화기관 안정화 •높은 수준의 비타민과 균형 있는 미네랄 공급				•반추위기능을정상적으로유지 •최대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 향상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영양소 균형 •비육효과를 최대로 발현시키기 위하여쾌적한환경 조성 필요				•근육내 지방 발달 극대화로 육질 향상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 있는 배합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영양소 균형 •고급육 효과를 최대 발현시키기 위하여 TDN을 높여 줌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을 향상 •과비방지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어린송아지	20.0	2.5	20.0	번식우	14.0	2.0	15.0	육성기	15.0	2.5	20.0	비육전기	13.0	2.5	20.0	비육후기	12.0	2.5	20.0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10.0	0.9	1.5	70.0	15.0	0.8	1.2	68.0	15.0	0.7	1.2	70.0	15.0	0.7	1.2	73.0	15.0	0.7	1.2	75.0

사료가격 투명화/합리적 가격/생산비 절감

고품질 한우사료 ‘대한한우’

한우 생산비 중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사료비 비중이 50%이상!
사료가격 결정의 주체는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23년 11월 협회전용 사료 ‘대한한우’ 가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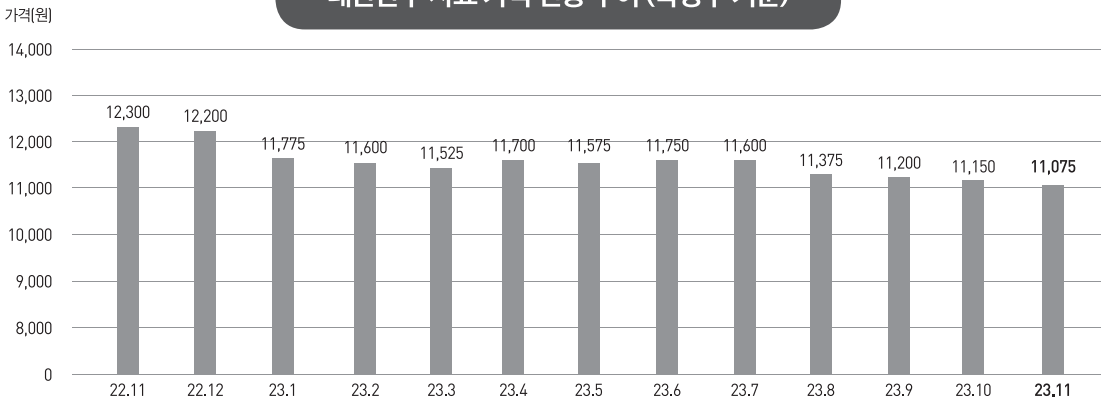
공장출고가 기준(운송비 등 추가비용 반영안된 가격임)

※매월 1일 환율 및 유가(곡물가) 변동 등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



어린송아지	번식우	육성	비육전기	비육후기
14,700 벌크(kg/원) 572	10,900 벌크(kg/원) 420	11,075 벌크(kg/원) 426	11,275 벌크(kg/원) 434	11,475 벌크(kg/원) 442

대한한우 사료 가격 변동 추이(육성우 기준)



한우마당

Hanwoo Journal



전국한우협회 회원 소식지 **한우마당**은
매달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한우마당은 대한민국 전체 한우 사육두수 약 70%에 달하는
협회 회원과 전후방업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연간 15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정보는 물론,
축산관련 잡지 중 가장 많은 구독부수로
높은 전파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광고문의

- 1) 광고 문의 및 접수 : 025251053@daum.net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월간 한우마당」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참고)
- 2) 광고규격 : 188mm×257mm / 내부여백 7~10mm 필요
- 3) 광고금액 : 홍보팀 문의 (장기계약 우대)
※ 「한우마당」 광고업체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홍보관 메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원고 및
광고시안
마감

주요 배부처 및 일정

- 1) 협회 대의원 및 임원 등 지도자, 전국 지회·지부, 일반 회원농가
- 2)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국 각 지자체 축산과
- 3) 전국 수의대학 및 동물생명, 축산학과, 특성화 대학 등
- 4) 전국 농축협 및 관련 유관기관, 한우협동조합, 전문지 언론사
- 5) 사료 기자재 등 한우마당 광고업체



구독안내

한우마당은 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전국한우협회 홍보팀으로 문의주십시오.
☎ 02)525-1053 (내선 202 또는 218)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https://www.ihanwoo.org>
- 한우마당 뉴스 웹진 <http://www.ihanwoo.kr>



제24권 제11호(통권 204호) / 2023년 11월 10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삼주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편집 김재광
광고 이기찬 제작 HNCOM 발송 지산포스트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2층
전화 02)525-1053 / 02)597-2377 팩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인터넷 한우마당 www.ihanwoo.kr
한우협회 누리집 www.ihanwoo.org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전국한우협회

KOSDAQ
코스닥상장법인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



빠르고, 오래가는 호흡기 질병 1차 선택 약!

트랙스 주 톨라스로마이신

TRAXX inj.

- ✓ 속효성 & 지속성 주사제 (단, 1회 주사로 14일동안 효과 지속)
- ✓ 강력하고, 광범위한 항균 효과
- ✓ 적은 용량으로 주사스트레스 감소
- ✓ 축종별 포장단위로 잔여량 절감 (20mL, 50mL 포장단위 출시)
- ✓ 폐사율 감소 및 생산성 향상



대한뉴팜